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Society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6 2015년 6월 1일 제 351호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대표전화 |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 kjc1405@hanmail.net

주요활동
· 공정언론지향·언론문화창달
· 언론관계 출판·연구발표
· 언론상 시상
· 언론인 복지 후생사업

임진왜란 - 6·25前夜 되풀이 말자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이도형
·본회 상담역
·전 한국논단 발행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공동체 주인의식과 국민총의 不在속 권력형 부패 만연

北核위협 불구 親北세력 활개 이러다간 또 당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살려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다. 그러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살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歷史에서 얻은 교훈 살려나가야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지 불과 30년도 안되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또 패배했다. 일본은 군국주의 팽창정책으로 패망했으면서 다시금 과거의 길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력의 팽창은커녕 맨날 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배층의 극심한 부패로 말미암아 늘 외적을 불러들이곤 했다. 부패무능한 정권에 저항한 민란이 외세를 끌어 들였고(청일전쟁), 역시 부패무능한 宣祖朝가 倭亂을 유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지배층이나 민중은 각성할 줄 모른다. 1592년부터 7년간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짓밟고 짓이기고 간 왜적들은 남자는 모조리 죽이고 부녀자는 보이는대로 능욕했다. 우릴 도우러 왔었다는 明軍은 왜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소설 '임진왜란'을 쓴 故 金聲翰씨는 당시의 조선인구 8할이 희생되었다고 했다. 당시 추정인구는 약 8백만. 6백 40만명이 죽거나 왜군에게 끌려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患亂, 더 비참한 國難이 또 있었을까. 그런데도 불과 27년만에 後金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종노릇을 해야 했다. 또 그로부터 10년만인 1637년 우리는 치욕의 병자호란을 겪게 된다. 힘이 없었다는건 핑계가 안된다.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샤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저항을 거듭해도 당할 수가 없어 뿔뿔이 헤어져 살다가 20세기 들어와서야 팔레스타인의 좁은 땅(2만7백 평방㎞)에 나라를 세워 5백만 남짓한 국민이 살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적대적인 1억 4천여만 아랍인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 고난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인들은 상대방이 손끝만 움직여도 선제공격으로 섬멸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에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천안함·연평도 공격 등 현실적 무력위협, 교만한 일본으로부터의 외교적 위협을 막아내지 못하는가?

세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한국인은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 대다수 한국인은 내집, 내것에 대한 物的소유의식은 비할데없이 강하다. 하지만 내집에서 한발짝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이웃→사회→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은 없어진다. 내가 바쁘니 公共의 약속인 교통규칙을 무시하는 등, 내 이익이 공동체이익에 우선한다. 이래서는 국가구성원인 국민이 강해질 수가 없다.

둘째로,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 즉 총의(National Consensus)가 형성되지 않는다. 遠因을 따지면 일제식민지배로 말미암은 부역과 애국, 애국의 방법론 등으로 분열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멀리는 黃允吉과 金誠一의 견해차가 정치권력과 관련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집념으로 벌어지는 쟁투… 四色당쟁의 DNA가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을 극복 못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는커녕 국가의 유지조차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권력의 고질적인 부패와 무능.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이며 경제력이 15위권이라 하지만, 세계경제자유도 순위는 40위, 점수로는 68.1이다. 부패로부터의 자유도는 51점이며 노동자유도는 464점…낙제점수다.(이상 헤리티지재단 발행 2009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임진왜란 때나 6·25때나 공통적인 건 부패였다. 6·25때는 다행이 반공이라는 국민적 총의가 있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기에 싸워야 한다는 주인의식도 있었다.

지금은 주인의식도 국민적 총의도 없는 가운데 권력의 부패만이 만연되고 있다. 6·25는 아마도 임진왜란이후 未曾有의 國難이었을 것이다. 1천만명의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 하고 3백만의 비전투원이 죽었다.

태극기 불태워도 벌주는 사람 없어

그런지 불과 65년. 정치와 사회는 도로아미타불격이다. 6·25직전 북한은 우리에겐 하나도 없는 무기만 갖추고 있었다. 그때로는 최신예인 T34탱크 242대, 야크 15전투기 2백대, 각종야포 1천여문, 전투병력 20만. 우리는 M1과 칼빈소총, 더러는 일본군이 남기고간 99식 소총으로 무장(?)한 9만여명의 군대가 있었을 뿐이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언감생심 흉내도 낼 수 없는 핵폭탄을 최소한 10~20개, 사거리 1천 3백㎞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세계無比의 특수전병력 10여만을 포함한 110만 전투병을 보유하고 있다. 6·25전야의 국회는 절반 가까이가 反美·反이승만정서의 소유자들이었다. 성인인구의 3분의 1(5백만)쯤이 좌익정당·사회단체 구성원이었다.

지금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反박근혜·친북행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의 주류는 북한의 권력집단을 敵對視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의 통일위원회가 흡수통일(헌법 4조)은 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公言하고 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은 6·15선언을 함축한 뜻이며, 6·15는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뜻하고 있다. 즉 赤化통일을 해도 좋다는 것이다. 태극기를 공공연히 불태워도 벌주는 사람 없고, 북과 합의한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것이 雩南 李承晩이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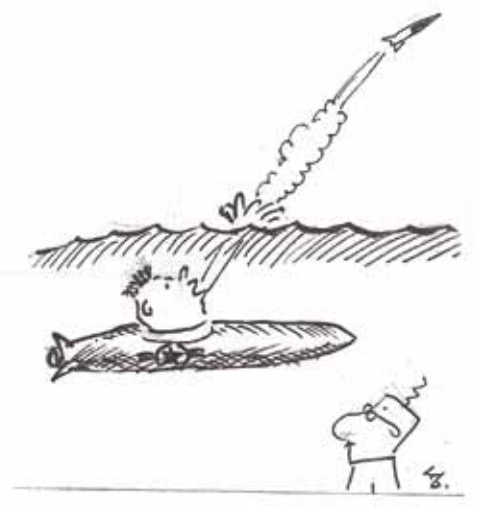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소멸돼가고 있다. 6·25전에는 그래도 정부가 앞장서 좌익 또는 공산주의자들을 설득, 전향시키려는 노력도 해 보였다. 그 결과 6·25직전까지 140만명이 전향했다. 이른바 보도연맹이다.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는 주체도 없다. 모두들 '좋은게 좋은' 방향으로 휩쓸려가고 있다.

'좋은게 좋다'는 현실타협 思考다. 구한말에도 그런 생각이 지배층간에 만연됐다. 乙巳늑약 체결당시 외무대신이던 李址鎔은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가 준 1만엔에 팔려 도장을 찍었다. 지금 '조선로동당'으로부터 매수당해 그들과 협조하는 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극복의 길은 없는가. 가시적인 극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단 하나, 바랄 수 있는 것은 애국가 가사 1절에 읊어지고 있듯 '하나님이 保佑'하사 우리나라 만세 뿐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스스로 돕지 않는자에게 거저 복을 줄 리가 없다. 必是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임진왜란 7년 겪고도 정신 못차리는 조선백성에게 정묘·병자호란이라는 불벼락을 내렸듯, 6·25라는 환란에도 각성 못하는 한국인은 또 어떤 카타스로피(재앙)를 당해야 될까. 이러다간 또 당한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저놈의 方向이 언제 달라질지?

南 국민투표로 核무장의지 밝혀야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특별기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정은 核발사 명령땐
北엔 말릴사람 없고
南엔 막을방법 없어

국방비 대폭 늘려
돈으로 北압박
美에도 국민여론 압력을

북한의 핵문제를 취재해온 지 거의 30년, 요즈음 와서 생각하니 한국의 역대 정부가 敵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가 지도부마저도, 핵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란 체념을 갈고,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는 요행심과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에 몸을 맡기고는 사소한 데 목숨 거는 권력투쟁에 탐닉해 온 세월이었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요행심에 매달려

北核에 대한 정보판단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져 왜곡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先入見이나 우리 식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 북한의 경제력이 형편없으니 무기 개발 수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이 군사력 건설에 자원을 쏟아 부었기에 경제력이 망가진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도. 핵무기 개발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운용보다 훨씬 쉽다. 국가 단위의 조직이라면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핵무장은 시간 문제이다. 對北제재에 대한 過信도 있었다. 북한에는 항만 및 공항 봉쇄가 적용된 적이 없고, 중국이 뒷문을 열어놓았으므로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북한의 무기가 대체로 조잡하다고 한다. 그런 조잡성은 오히려 북한식 自力更生(자력갱생)의 집념과 저력을 보여준다.

미국을 때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면 몰라도 남한 공격용은 철공소 수준이라도 날아가서 터진다.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체제의 운명을 건 지 30년이 흘렀다. 100만 대군을 가진 광신적 이념무장 집단이 한 우물을 팠다는 점을 경시하면 낭패하게 된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폭탄 대량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탄두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실전배치하였거나 그 직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스위스의 核방공호 건축 본받아야

세계에서 핵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마도 중립국인 스위스일 것이다. 반면 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두 나라의 대비 태세는 정반대이다. 스위스는 1515년 프랑스와 베니스 공화국 연합군에 패배한 이후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다. 외교적으로는 중립, 군사적으론 전국민의 예비군화 및 전국토의 지하 요새화에 성공한 덕분이다. 1963년 10월4일 이후 스위스는 민방위법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때 핵방공호 건축을 의무화하였다. 주거지와 병원 등에 약30만 개의 방공호와 약5,100개의 公用 방공호가 있다. 핵폭탄이 터지면 전인구의 약114%가 방공호에 들어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냉전 종식 후 스위스 의회에 핵방공호 건설 의무 조항을 폐기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지만 정부는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가 핵방공호를 유지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은 매년 약1억5000만 달러이다. 전국 방공호의 총 건설비용은 약1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스위스 식으로 핵방공호를 짓는다면 인구가 약7배인 한국은 약700억 달러(약70조원)를 들여야 한다. 與野가 한때 가입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하였던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을 실천하는 데는 2100만명의 가입자가 매년 약35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런 추가부담 2년분이면 5000만 한국인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 일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면접, 북한 독재자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는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형이다."

지금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면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말리다가는 장성택, 현영철처럼 처형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핵은 핵으로서만 대응할 수 있고, 공포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전쟁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美蘇 간에,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사이에서 이미 증명된 원리이다. 대응 핵무장도, 핵미사일 방어망과 방공호 건설도 서둘지 않는 한국의 '核前 무장해제 상태'는 김정은이 핵 발사 단추를 누르고 싶도록 유혹한다. 강간상습범 앞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스위스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바보들이고, 한국인은 요령 좋은 수재들인가? 아니면 훗날 역사는 "역시 우직한 스위스 사람들은 현명하였고, 영리한 한국인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핵폭탄을 맞고 멸종되었다"고 기록할 것인가?

한 유명한 역술인이 결혼식장에서 나를 보더니 다가와서 진지한 농담을 했다.

"저는 요사이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긴 쏠 것 같은데, 제발 불발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歷代 대통령들도 구경꾼입장 보여

필자는 5000만의 生死와 직결된 핵위협을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공직자를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역대 대통령들조차 주인의식 없이 구경꾼 입장이었다.

1994년 6월 미국이 영변 핵시설 공격을 준비하자 金泳三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하였다. 당시는 북한이 핵무장하기 전. 이때 예방적 선제공격의 기회를 놓친 한국은 이제 와선 핵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핵무장한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킬 체인' 계획을 선전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국정원 전 실장의 평)이다.

국정원장 시절 직원을 시켜, 핵과 미사일을 개발 중이던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이 조성한) 수억 달러를 보내도록 했던 林東源 씨는 수년 전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엄청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북한정권이 스스로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자백하였던 것인데, 林 씨는 김정일보다 더 김정일을 편든 셈이다. 前 미국 유엔 대사 볼튼 씨는 그를 '북한정권의 진짜 변명가'라고 불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7년 르몽드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북한 대표들은(미국 측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믿는다." 2010년 북한은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 영변에 세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줌으로써 임동원, 김대중의 오판(?)을 간접적으로 폭로하였다.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盧武鉉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그 한 달 뒤 盧 대통령을 만났다. 퇴임 후에 쓴 회고록에 의하면, 게이츠는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라고 썼다.

한국은 적이 핵무장하였는데도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뿐만 아니다. 적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데도 방어망과 방공호를 만들지 않는다.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수사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정권을 넘본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北核을 도운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반도 주변에선 이런 역학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고, 반대편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선다.

소름끼치는 사태엔 소름끼치는 결심해야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核미사일방어망 건설에 반대해온 좌파 정권이 중국 및 북한과 공조할 경우, 한국은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다. 남한의 좌파정권을 부하 취급하는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언론은 탄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주의적 국가 정체성이 변질될 것이다.

北의 核 중심 비대칭 전략에 맞설 한국식 비대칭 전략을 생각할 할 때이다. GDP 기준, 한국의 경제력은 北의 44배, 우리의 강점인 이 돈을 써야 한다. 核

3면으로 이어집니다.

北 SLBM '공포의 균형'이 답이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특별기고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전 국방대학안보문제연구소장

탐지-요격 어려워
ICBM보다 위협적
核엔 核으로 맞서야

한국 독자적으로
核개발 못하면
美전술核 재도입 필요

지난 9일 북한은 모의탄을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화면을 공개했다. 이 화면을 두고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된 것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발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북한 SLBM 기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에 의한 판단 결과, SLBM은 성공적으로 수중에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모의탄의 비행거리가 150m밖에 되지 않았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경험상 4~5년 후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이 발사할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예견되었던 北의 SLBM 개발

사실 북한의 SLBM 개발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2012년 12월, 은하 3호로 위장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자 향후에는 북한이 SLBM 개발에 전력질주할 것으로 생각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SLBM 개발이었기 때문이다.

SLBM은 지상이나 함상에서 발사되는 ICBM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ICBM은 다양한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 다양한 감청 장비, 그리고 지상·해상 레이더 등을 통해 발사지점 및 시점, 그리고 경로 등이 추적된다. 또한 ICBM은 비교적 먼 거리를 비행하기 때문에 각종 정밀유도무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격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방어(MD) 개념이다. 그러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것도 짧은 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통상 강대국들은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 ICBM으로 대표되는 지상발사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등 3축(軸)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적의 핵미사일 공격에 의해 한 축(軸)의 핵미사일이 완전 파괴되어(first strike)도 살아남은 다른 축의 핵미사일이 상대방을 공격(second strike)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SLBM이다. 이미 강대국들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핵무기로 공격하면 상대방도 살아남은 다른 핵무기로 나를 공격할 것'이며 결국 '전쟁은 패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때문에 핵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對) 핵미사일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우선 NPT를 통해 핵무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제1격(first strike)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MD이다. 가상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최종 목표에 떨어지기 전까지 감시 및 추적 수단과 다층적 요격 수단을 이용하여 적 미사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만들고 ICBM에 이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 북한판 MD 수준은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수준도 한참 떨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슴도치형 공포의 균형 전략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과 SLBM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대북한 핵미사일 전략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은 NPT체제 속에서 핵개발을 할 수 없고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조차 없기 때문에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한국은 MD의 한국 버전인 킬 체인(Kill-Chain)과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제(KAMD)에 매달리고 있다. 킬 체인은 북한 미사일을 선제공격하는 것이고 KAMD는 선제공격을 피해 한국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이것도 2023년이 되어야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북한 SLBM에 대한 대응도 추가해야 된다.

Kill-Chain과 KAMD론 한계

Kill-Chain과 KAMD를 해상과 해저로 확장하면 북한의 SLBM에 대처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센서체계를 조금 더 갖추고(첩보위성, 글로벌 호크, 고성능 지상 및 수중 레이더, 대잠 헬기 등), 타격체계를 조금 더 갖추면(패트리엇-3, M-SAM/L-SAM, SM-3, SLBM 탑재된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등) 된다. 이렇게 되면 Kill-Chain과 KAMD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 17조원에 추가적으로 몇 조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해도 완벽한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도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 완벽한 MD를 구축하지 못한 이치와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의 대북한 핵미사일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 후 MD 구축을 하고 있다. 북한은 고슴도치형 공포의 균형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완벽하지도 않을 수 있는 Kill-Chain과 KAMD에 목숨을 걸고 있다.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 없이는 북한의 핵 그늘과 핵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NPT 체제 속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면 이제는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재도입하여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전략 변경에 누군가 제동을 건다면 그 누구에게 '왜 20년 넘게 북한 핵을 폐기시키지 못했냐'고 따져야 할 것이다. 한국도 전술핵무기를 영구히 배치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북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포의 균형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미국과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

을 돈으로 무력화시키는 비대칭 전략이다. 국방비와 對北공작비를 대폭 늘리고, 미사일방어망과 방공호를 서둘러 건설하고, 對北풍선도 전국민이 한 날 한 시에 날려 북녘 하늘을 새까맣게 덮도록 하며, 드론과 로봇 기술도 활용한다. 북한처럼 목숨 걸고 핵무장을 하기 싫으면 국방비를 두 배 올리는 정도의 결심은 해야 살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무엇보다도 큰 힘은 국민 여론이다. 敵의 핵미사일실전배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소름끼치는 사태이다. 우리도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산다. 국민들이 생존투쟁 차원의 주권적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진상을 보고하고,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의 선택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이 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때, 한국 정부는 비로소 국민 여론을 업고,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미국에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 해역에 핵잠수함을 常時(상시) 배치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할 수 있다(한국의 기술진은 국가가 결심하면 핵실험 없이도 2년 안에 핵폭탄을 100개 이상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링컨은 "국가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진실을 알려야 할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했다. 안보 위기를 과장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축소, 은폐다.

피할 수 없게 된 한반도의 3대 문제, 즉 北의 핵미사일실전배치, 北의 인권탄압, 그리고 從北세력은 북한정권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정권을 해체하든지 변화시키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유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냉전 시절 소련이 핵을 가졌는데 미국이 갖지 않았더라면 어느 쪽이 무너졌을까? 北의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길이 한반도 통일의 길이고 민족의 살 길이다.

'실록 –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5집 출판

대한언론인회는 금년에도 '실록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5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연내에 출판하게 될 이 책은 그동안 필진에서 빠진 70세 이상 회우 30명을 선정, 원고를 청탁할 계획이다.

※ 지난 호까지 필진에서 빠진 70세 이상 회우 중 집필을 희망하시는 분은 6월 15일까지 사무국(732-4798 정운종 이사)으로 연락바랍니다.

北韓 비대칭 戰力 예상보다 위협적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쏜 것인가, 아니면 수중 바지선에서 쏜 것인가"

최근 북한이 SLBM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해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지만 그 실체를 둘러싸고 우리 군 당국과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사출시험을 한 것이 맞으며 미 정보당국도 같은 견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기술능력 등을 감안할 때 잠수함에서 사출시험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SLBM 실전배치 시기 앞당겨질 가능성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일까? 필자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고 종종 거짓말을 해온 군 당국을 무조건 믿지도 않는다. 특히 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과소평가돼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부풀려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해외 군사전문가들처럼 북한의 SLBM 개발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군 당국과 국정원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 이유는 보안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우선 북한이 지금까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이 SLBM 사출시험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구 소련의 SLBM 기술자와 기술이 북한으로 몰래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 시험은 잠수함에서 SLBM이 고압 증기나 공기로 밀어올려져 물 밖으로 튀어나온 직후 엔진에 점화되는 단계까지 이뤄진 것으로, SLBM 개발의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SLBM 개발 초기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부 능선 이상을 넘은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북극성-1'이라 불리는 SLBM을 수백 ㎞ 이상 날려보내는 비행시험 등을 해야 하지만 북한이 이미 이 미사일의 지상배치형 미사일인 '무수단'을 실전배치했다는 점에서 개발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군 당국이 예상한 4~5년내 보다 실전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SLBM 개발은 북한의 비대칭 전략과 위협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한다.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신포급'이라는 잠수함도 군사 상식을 깨는 것이다. 보통 SLBM 잠수함은 3,000톤급 이상이지만 북한은 2,000톤급에 불과한 잠수함에 단 한 발의 SLBM을 장착해 실전배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탄두 SLBM 한발을 잠수함에 싣고 우리 후방해역에 들어와 뒤통수를 후려치는 '일격필살'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현재 우리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들 체계가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만을 상정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해 후방지역 방향으로도 감시를 하고 미 공격용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해에서 잠수함 찾는 것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로 불릴 만큼 어려운 일인 지라 우리에게 많은 출혈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런 비대칭 위협과 재래식 전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재래식 전력은 전차, 전투기, 함정 등 일반 무기체계들을 일컫는다. 핵무기와 달리 한두개로는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 하고 그만큼 돈이 든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잘 알려진대로 낡은 무기체계들이 많다. 국방부는 재래식 전력면에서도 공군을 제외하곤 육군과 해군면에서 우리가 아직 열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병력과 각종 화포 숫자 등이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육군을 제외하곤 해·공군에 있어선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재래식 전력외에 북한이 우리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는 비대칭 전력이다. 10~2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1,000여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2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70여척의 잠수함정,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사이버전 전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엔 조악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 비대칭 위협으로 부각됐다.

북한의 이런 비대칭 전략과 위협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에 패퇴했던 1950년 12월 23일 김일성은 평안북도 만포진 별오리에서 군 지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승세를 굳혀가다가 패배한 원인에 대해 비정규전 부대와 보급의 중요성 등 여덟 가지 교훈을 제시했고 이 교훈은 그 뒤 북한군 군사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북한식 군사전략을 상징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6년엔 "한반도는 산과 하천이 많고 긴 해안선을 가지므로 이러한 지형에 맞는 산악전, 야간전, 배합(配合)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돈이 많이 드는 재래식 무기 증강이 어려워지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싸구려 무기'로 국민 안보불안감 조장

문제는 북한이 이런 '싸구려 무기'로 우리 군을 우롱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키우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수십만원짜리 GPS 교란기는 수백㎞ 떨어진 GPS 장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 2012년 12월 북한 은하3호 로켓의 잔해를 서해 상에서 수거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크게 낙후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을 가장 괴롭히고 큰 피해를 준 것은 첨단무기가 아니라 원시적인 IED(급조폭발물)였는데 북한은 이 두 전쟁을 철저히 연구하며 유사시 IED로 한·미 양국군을 괴롭힐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면 지난 60여년간 이런 북한군과 맞서온 한국군은 어떤 자세를 가져왔는가?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잠수함정,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대응책을 세웠다고 해왔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겪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는 2020년대 중반까지 줄잡아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의 잇단 비대칭 위협에 '뒷북 대응'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끌려만 다니는 듯한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우리 군도 북한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전략 수립과 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핵심 표적은 당연히 김정은 밖에 없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 탄도·순항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특수부대 등을 통해 유사시 김정은이 전쟁을 도발했을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참수 작전' 계획 수립과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해지고 있다.

특별기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군사전문 기자

核-미사일 외에도
생화학 무기-장사정포
특수부대-잠수함정 등
대응 어려운 장비 많아

전쟁땐 '김정은' 제거
'참수작전' 마련해야

6월 산행 축령산갑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회장 이상호)는 아래와 같이 경기도 가평의 축령산(해발 879m) 서리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산림휴양공간인 '축령산 잣향기 푸른숲'으로 6월 산행을 떠납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잣나무숲에서 숲체험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잘 정비된 숲길 따라 트레킹에 나서는 축령산 산행에 회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출발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요일) 오전 8시 프레스센터
- 회 비 : 2만원
- 산행코스 : A팀= 숲체험 코스 참가(2~4km·2~3시간)
  B팀= 축령산 정상 왕복 산행 (약 3시간 소요)
- 산행문의 : 이상호 회장(010-3855-8624)
  나용경 총무(010-2691-0084)
  황귀근 산행대장(010-2266-3169)

大韓言論人會 山岳會

韓-美동맹 바탕 '안정적 균형' 유지를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특별기고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동아시아 하늘에 美-中 두개의 태양 '선택'은 무모한 일

中-日-러 등과 동반자 관계 구축 패권국 부상 막아야

연전에 한 중앙 일간지에서 매우 흥미롭고 논쟁적인 칼럼을 읽게 되었다. 대표적인 중국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미국과 중국, 두 태양 중 누구를 선택하나'란 칼럼으로, 그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하늘에는 미국이외에도 중국이란 태양이 뜨고 있고, 한국은 선택을 해야한다는 요지였다. 필자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자들은 아마도 새로운 태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나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동아시아정책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둘러싼 美—中 경쟁 본격화

사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특히 한국을 둘러싸고 치열한 미중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과 미의회에서의 박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솔직히 놀랐었다. 당시 오바마정부 5년간, 미양원 연설의 기회를 가진 해외인사는 단 6명뿐이었다. 영국총리, 독일총리, 멕시코대통령, 이스라엘대통령이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대통령이 두차례나 연설의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미일동맹이 코너스톤(cornerstone)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한미동맹을 동맹관계의 최상급인 린치핀의 관계라는 표현도 거침없이 적용되었다. 왜 이렇게 미국은 한국을 중시하는 것일까? 그 의문은 한달 뒤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풀렸다. 한달 뒤 중국도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상최대의 쇼로서 극진히 환대했다. 보이지 않는 미중간의 경쟁이 한국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한반도,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됨에 따라, 미국도 한반도가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는 choke point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미중경쟁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본격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국은 두 태양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패권적인 국가가 등장할 때, 예외없이 한반도에 있던 국가(왕조)는 붕괴하거나 커다란 전쟁에 휩쓸린 바 있다. 중국대륙에 한나라라는 통일국가가 등장했을 때, 고조선이 멸망했고 당나라의 등장은 한반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일컬어지던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을 초래했다. 명나라의 등장은 고려의 멸망을 그리고 명치일본의 등장은 조선의 멸망을 초래했다. 패권적 국가가 주변에서 부상하는 것은 결코 한국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한국 지정학적 위치 최악의 환경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폴란드와 함께 최악의 환경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어느 한 나라도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국들이다. 한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국익은 명백히 지역에 있어서의 안정적 균형(stable equilibrium)이다. 안정적 균형이 있어야만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편한 호흡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오랜 지혜는 역외자인 미국과 협력,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도 성공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15개 국가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파키스탄과 한국 정도일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한 한중 전략동반자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결코 한국의 정책은 두 개의 태양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일은 아니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더욱 더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 등 지역의 국가들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00자 발언 대'

빗나간 弔問예절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배달민족은 '조문예절'을 특히 중시해왔다. 상주는 빈소를 찾는 조객을 낮은 자세로 맞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묻는 말에나 작은 소리로 대답해야 한다.

하물며 상주가 조문 온 내빈을 향해 정면공격을 하고, 있는대로 망신을 주었대서야 말이 되는가?

"전직대통령(아버지)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란 직격탄 대신에 "오늘 아버님 빈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자식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주변을 감동시켰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용우(논설고문)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다음달 있을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의 국회청문회로 또 나라가 한동안 시끄러워 질것 같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해서는 1. 정부의 검증보고서(정책검증, 업무능력 및 신상검증)를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하고 2. 국회는 정부검증서 검토 후 공개청문회(정책, 업무)와 비공개청문회(도덕성 흠결여부)로 나누어 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미국 의회의 청문회제도와 비슷하다지만 국익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한 것 아닌지…

윤기병(상담역)

"나에게는 가을 서릿발처럼…"

옛말에 '接人春風 臨己秋霜'(접인춘풍 임기추상 : 다른 사람 대하기를 봄바람처럼 하고 나에게는 항상 가을 서릿발처럼 하라)이라고 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이야말로 첫 번째의 덕목이어야 한다. 자신과 계파에 대해 서릿발처럼 엄격하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치적 패배뿐이다.

최귀조(본회 이사)

욕심이 잉태하면…

—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

고생 끝에 돈 벌었는데 욕심 때문에 법을 어겼고 그 때문에 자살한 사람. 딱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만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욕심과 죄? 이기와 욕심, 나는 비슷한데 너는? 의인인척 뻐기는 지도자, 많이 배워 거짓말 잘하는 재주꾼들. 그들 땜에 나라 걱정까지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호천웅(편집위원)

훌륭한 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호사건 유족과 시민단체들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1년 이상 설치되어 있는 천막설치 문제와 관련, 서울시청 간부들에 대한 경찰수사에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좋은게 그런 무한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냐"며 "구속되는 사람은 다음 총선에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기도. 아주 훌륭하신 시장님을 우리가 모셨는가요?

이보길(회원사업위원장)

南北 頂上회담 연연해 할 필요없다

손주환
·본회 회우
·전 공보처 장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국민적 합의
헌법정신 바탕
기본원칙 지켜야

88년 첫 對北제의
공개-비밀협상 병행
南北 해빙무드 불러

남북한관계가 8년 째 장기 교착상태이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시계가 어두운데다 미국·일본, 미국·중국, 북한·일본, 북한·중국, 북한·러시아 등 관계가 요동치며 동북아정세는 일대 격랑이 일고 있다. 이런 국제환경에서 우리의 사활이 걸린 북한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결빙기에 나타난 북한 경제의 점진적 중국편입현상 등 난제에 부닥쳐 있는 우리로서는 남북관계를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만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 막힌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재와 같이 거의 단절된 남북관계에서 그 돌파구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상위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마다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남북정상회담을 상위에 두어왔다.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 때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김영삼 정권 때는 합의된 정상회담이 김일성의 돌연사로 무산되었다. 다른 정권 때도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되었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에 최적의 정책인가.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의 유효성을 우리의 남북관계 역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88년 광복절 경축사, "남북정상 만나자"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88년 8월15일 제 43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남북한 최고책임자 회담을 조속히 갖자"고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처음으로 제의했다. 막후 비밀접촉을 통한 탐색, 협의가 아닌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그 4개월 후인 그해 12월28일 강영훈 총리가 북한 측 연형묵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한 총리회담을 제의했다. 북측이 20여일 후 그 제의를 수용, 1년 8개월의 힘든 줄다리기 끝에 1990년 9월5일 서울에서 남북 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의 첫 회의가 열렸다. 노태우 대통령은 연형묵 총리를 비롯한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10명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당신들 주석을 위해서도 백번 좋은 일이다. 이 뜻을 솔직하게 그대로 전해 달라"며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두 번째 공식으로 언급했다.

안기부장 특사로 보내 다시 회담 제의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서동권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장을 극비로 평양에 보내 김일성 부자와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데서도 나타난다. 그 시기는 1990년 10월 초, 2차 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기 2주전 쯤 되는 때였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제의와 비밀 특사를 파견한 비공개 접촉 등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활용했다. 서동권 부장은 김일성 부자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논의했으나 북측이 고려연방제방안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을 고집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동권(2011), "'연방제 안 된다.' 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노재봉 외, ≪노태우 대통령을 말한다≫, 432~433쪽〉

이어 강영훈 총리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자리(1990년 10월18일 금수산 주석궁)에서 정상회담개최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세 번째 공식적인 제안인 셈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강 총리에게도 남측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수용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일성은 서동권 부장 방북의 답방 형식으로 그 해 (1990년) 12월 말에 북의 노동당 대남사업비서인 윤기복을 서울에 비밀로 보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를 접견한 자리에서, 윤 비서가 또 다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해 언급하자 "연방제통일 소리 그만 하시오! 귀 따갑소!"라고 핀잔을 주었다. 연방제는 안 된다는 노 대통령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문제는 남북고위급 5차 회담을 1991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열기로 일정이 확정된 후 우리 측 내부 전략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5차 회담에 앞서 참모들 간에는 정상회담과 남북합의서 채택을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상회담개최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연계 하지 말고 남북합의서 문제를 우선 타결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었다. 〈노태우(2011), ≪노태우 회고록 하권≫, 298쪽, 301~321쪽〉

"남북기본합의서 타결이 우선이다."

노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었다. 남북관계의 외연을 더 넓게 보고 내린 결단이었다. 노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별개 의제로 분리하고 기본합의서 협의에 집중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기본법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가 5차 고위급 서울회담(1991년 12월13일)에서 타결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핀 바대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유효성은 마지막 선택에서 고위급회담(총리회담))의 하위로 밀어냈다. 꾸준히 협의가 진행되어온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공(남북기본합의서 타결)이 남북관계발전에 보다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일관되게 유지한 원칙은 북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적 합의였다.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었다.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대한민국헌법정신의 존중은 기본원칙이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합의(2000년)는 위헌(북의 연방제통일방안 수용)이며 국제사회의 '과시용'이었고, 또 임기 4개월여를 남기고 성급하게 밀어붙인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합의(2007년)는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두 차례 모두 '독선적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장기 교착상태를 가져온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신종대(2013),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2호, 1~35쪽〉

노태우 정부의 사례는 이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그 시대의 사례는 정상회담의 추진 방법도 먼저 공개적으로 제의한 다음 공개와 비밀협상을 병행했으며 남북의 공영 공생을 향한 관계발전에 정상회담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또 실용적으로 재단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정상회담 협상에 국민적 합의를 존중했으며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 정상회담을 대북정책의 최상위에 두지 않았으며 이에 연연하지 않고 대북 협상의 기본원칙을 고수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노태우 시대가 분단 이후 최고의 남·북해빙기로 기록되고 있으며 '독선적이며 편 가르기 식'으로 비판받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그것이 엄정한 역사적 현실이다.

회우들이 펴낸 신간

김영수 회우 '대한민국 기자'

신문의 정치부장, 방송사 보도국장과 사장을 지낸 김영수회우(본회 자문역)가 8순에 '대한민국 기자'라는 거창한 제목의 책을 냈다.

그는 책 머리말에서 "대학졸업 후 기자로 사회에 나온 이래 내 청춘, 내 인생은 우리나라의 숱한 격동기와 한 몸뚱이로 얽혀왔기 때문에 좀 과장을 하자면 전쟁 같은 삶이었다"고 언론 인생을 정리한다고 했고 맺음말에는 같은 기자의 길을 걷고 있는 둘째아들이 "아버지가 겪어온 세월은 그대로 우리의 현대사이고 알려지지않은 정치비사도 많으니 소중한 사료가 유실되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세요"라는 간곡한 권유로 '대한민국 기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연을 쓰고 있다.

김회우는 총 6장에 크고 작은 60꼭지로 '김영수 기자 평생의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있다. 1장(하라하찌부·腹八分와 나폴레옹의 무지개)에서 그의 성장기, 2장(열정의 시, 분 초)에서는 '신익희 조병옥의 급서'와 '차지철의 멱살잡이 한 판'등 혈기왕성한 젊은 기자시절. 3장(베테랑기자의 感, 감, 감)과 4장(내 인생의 특종)에서는 '김종필 총재와의 인연', '나는 새도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린격'등 민완, 장년기자 시절과 미국유학의 계절, 5장(MBC보도국과 나), 6장(3등 국회의원 열하고 보도국장 하나를 안바꾼다)에서는 신문기자에서 방송기자로 길을 바꿔 'MBC 사장 취임' '한국방송개발원장' 등 현업정리의 마무리와 국회의원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기자를 '순간을 역사로 만드는 자' '현장과 함께 숨을 쉬는 자' '렌즈의 뒤편에서 가장 앞선 진실을 타전하는 자'라 했고 스스로를 "1950~1980s 대한민국 위대한 격동기의 한복판에 선 기자의 삶"이었다고 했다.

김회우는 5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도서출판 세계사 발행·362페이지·책값 18,000원.

6·25 65돌

‘한알의 밀알’ 戰死者 유해 찾기

장석영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시인(한국문인협회 회원)

휴전직전 산화한 兄
뒤늦게 안장 생각
軍 당국서 적극 협조

발굴단에 DNA등재
후손에게 라도
전해지게 배려

그날 새벽 38선 전역에서 ‘북괴’의 남침 공격이 시작되었다. ‘6·25 사변’이 터진 것이다. 석주 형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형은 6월 중순경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고향집으로 내려와 ‘야학‘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것 같았다. 그러다 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그리곤 한 달 만에 포병 소위로 전선에 배치 됐다는 편지가 왔다. 특별히 나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다. 안채 어머니 방 장롱에 넣어둔 태극기를 잘 보관하고 사랑채 앞마당에 심겨져 있는 무궁화를 잘 키우라는 당부였다.

그의 편지는 계속 왔다. 편지는 그 때마다 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전선에서의 피아간 공방전이 치열하다고 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아군이 서울을 탈환했을 때나 평양을 점령하고 북진을 계속할 때의 이야기도 전해 주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다시 후퇴하다가 휴전 무렵에는 금화지구에서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된다고도 했다. 한낮엔 아군이 탈환한 고지가 밤을 지나면서 적군에게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계속되는 발포로 포신이 벌겋게 달아오르면 소변을 받아 포신을 식혀가면서 포를 다시 쏘기도 한다고 했다. 동족상잔의 혈전은 정확히 3년 1개월 2일 만에 끝이 났다. 휴전협정이 조인 된 것이다.

휴전이 된지 한 달쯤 지나서 두 통의 편지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한 통은 형이 마지막으로 보낸 안부 편지였고, 다른 한 통은 형의 전사통지서였다. 휴전 협정이 조인되기 3일전 금화전투에서 전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유해나 유품은 전달되지 않았다. 형의 전사 당시 상황은 휴전 몇 개월 뒤 같은 소대원이었던 다섯 분의 전우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 상세히 들려주어 알게 되었다.

그 분들에 따르면 휴전 무렵 전선에선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혈전이 피아간에 벌어졌다고 했다. 어찌나 포탄이 비 오듯 하는지 관측소에서 밖으로 나가 적정을 살필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쌍방이 퍼붓는 포탄으로 인해 하늘은 하루 종일 검은 연기로 덮여 있었다. 그러니 한낮인데도 관측 장비로는 도저히 적정을 제대로 관측할 수가 없었다. 그 때였다. 형은 “이렇게 부정확한 관측으로는 적을 섬멸할 수 없다”면서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쌍안경을 들고 수시로 참호 밖으로 기어나가 관측하곤 했다. 그때문인지 한참은 관측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군의 포가 적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때 적이 쏜 포탄이 아군의 관측소 부근에 떨어졌다. 순간 형은 포탄의 파편에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참호 속에 있던 부하들이 달려 나와 형을 참호 속으로 끌고 들어가 응급처치를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게다가 이미 아군 관측소가 있는 산은 중공군에 의해 완전 포위된 상태였다고 했다. 부하들은 부상당한 형을 들쳐 업고 후퇴를 시도했다.

그러나 형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미 죽은 목숨인 자기를 업고 후퇴하다가는 모두 죽을 수 있다면서 부하들만 후퇴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부하들이 안 된다고 하자 권총을 빼들고는 만약 자기 명령을 안 들으면 모두 총살형에 처하겠다며 부하들의 빠른 후퇴를 거듭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장렬한 죽음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산화했다.

부하들은 “소대장님의 부하 사랑으로 자신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통곡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의연하셨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전우들의 어깨를 어루 만져주면서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대한의 남아로서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냐.”면서 “엄마로서는 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니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며칠 있으면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형이 생존했다면 올해 84세가 되는 해다. 세월은 무척이나 빨리 흘렀다. 흐른 세월만큼 세상도 많이 변했다.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과 행동양식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 전쟁의 상처는 달력에 숫자로 표시되어 기념일로 기억되고 있을 뿐이다.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는 동안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의 호국정신은 점점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년 전 6월, 상이용사(당시 상사)였던 또 다른 형(셋째형)이 86세를 일기로 작고하여 대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다. ‘6·25’ 때는 두 명의 형들이 군에 입대하여 정부에서 ‘출정군인의 집’이라는 나무 팻말을 대문밖에 달아준 일이 있었다. 그걸 우리 식구들은 큰 자랑으로 여겼다. 셋째 형을 안장한 그날 대전에서 상경하면서 나는 전사한 석주형의 유해를 지금이라도 찾아 이곳에 안장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날로 형의 생년월일과 본적, 그리고 오래 전에 전우들로부터 들은 당시의 전장 상황들을 적은 편지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냈다. ‘6·25 사변’ 때 전사한 형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열흘만에 참모총장 명의의 답신이 속달로 왔다. ‘형은 포병 중위로 금화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유해는 현재 전장이 북한 점령지여서 찾지 못하고 위패만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흑석동 현충원 안에 위치한 유해발굴단에 찾아 가서 나의 DNA를 채취하게 하고 유해 발굴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는 다음날 아내와 함께 유해 발굴단을 찾아갔다. 나는 나의 DNA를 제공하고 발굴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발굴단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의 발굴신청을 받아 계속 발굴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북한 지역은 북한과의 발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 발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계속 북한을 설득하여 그곳에서 산화한 우리 장병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발굴단은 또 내가 사망한 후라도 후손들에게 이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내 아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등재해놓도록 했다. 그래서 유해가 발굴되면 언제라도 가족에게 통보하고 유해는 현충원에 안장하게 된다고 했다. 그 뒤로 유해 발굴단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그간의 유해 발굴 상황 등을 알려주는 서신을 보내주고 있다. 일관되고 철저한 보훈행정을 펼치는 국가와 정부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 명문家’ 선정 표창, 올해 22가문에 시상 병무청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올해 ‘병역명문가’로 466가문을 선정, 이중 22가문을 표창했다. 5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은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이문섭씨(경남 창원시 합포구)가문은 3대에 걸쳐 16명이 총 51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기록했다. 이 가문은 역대 병역명문가 가운데 가장 많은 병역 이행자수를 냈는데 육군 해군 해병대 해경 의경에 16명이 복무를 마쳤다.

또 국무총리상을 받은 한상배씨(서울 서초구 헌정로)가문은 3대 13명에 434개월, 최용목씨(경북 성주군 용암리)가문도 3대 12명이 370개월의 복무기록을 세웠다.

올해 12번째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선정하는 기준은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 3대인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까지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대한언론인회와 병무청은 공정병역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날 시상식에 김은구 회장이 참석,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국민을 '봉'삼는 꼼수정치 그만하라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권 무책임 정파 이해떠나 미래위한 생각을

배병휴
·본회 회우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공무원연금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꼼수담합 실상이 빤히 드러났다. 당초 합의안을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 '죽도 밥도 아닌' 맹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을 마치 '어리석은 봉'으로 여기며 공무원 조직에게 '셀프 개혁'을 내맡긴 개혁안을 그냥 처리하겠다고 시도했으니 무책임 독선이었다.

국민연금 연계는 월권·포퓰리즘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급한 불이자 역대정권이 알고도 고치지 않은 적폐를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견딜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경제는 저성장·저투자에 청년실업은 심화되고 있으니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연금적자를 보전해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설정한 것 까지는 옳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차지도 않는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떼 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갖다 붙이겠다는 당초의 발상은 분명 월권이자 포퓰리즘이다. 이에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성,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지만 이를 서민지갑이니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거짓생색 내려다 들통이 난 것을 '더 없이 잘된 안'이라고 우겨댔으니 얼마나 꼴불견인가.

만약 당초의 합의안대로 국회가 통과시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양당 대표는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권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속셈을 빤히 들여다 본 국민이 가만있겠는가.

김무성 대표는 '황제야당' 격으로 비유되는 국회선진화법의 발목을 고려하여 50%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문재인 대표는 사회적 연대를 비빌 언덕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반면에 공무원 노조는 연금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을 기득권으로 착각하여 안 되면 총파업 투쟁으로 국민마저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을 것이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철밥통 신분에다 옛 관존민비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꼴이니 분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 김 대표는 당내 친박을 누르고 당선된 후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여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선거에 표를 잃더라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4·29 재보선 참패 후 공무원 노조의 공적연금 강화 주장을 끌어들여 여당에 대해 "공무원 노조를 설득해 보라"며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이 같은 양 대표의 동상이몽 속에 국민대타협 실무기구를 발족시켰지만 알고 보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조직에게 '셀프 개혁'을 맡긴 셈이다. 실무위원 9명 가운데 국민을 대변할 전문가는 교수 2명뿐, 나머지는 공무원 노조와 관계부처 책임자 등으로 이를 국민대타협이라고 눈속임하지 않았는가.

이 결과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방향도 개혁의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은 현행 7%를 5년에 걸쳐 9%로 올리되 연금 지급률은 1.9%를 20년에 걸쳐 1.7%(10.5%)로 깎기로 했으니 재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이란 당초 '덜 내고 더 받는' 설계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지금은 하루에 80억 원씩 적자가 쌓인다.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 원, 연간 3. 7조 원, 5년 후에는 하루 200억 원, 연간 7. 4조 원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자폭이 다소 감소하지만 6년 후에는 다시 적자폭이 확대된다니 차기 정권과 차차기 정권이 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바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50% 인상의 총대를 멨으니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살폈다고 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07만 명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00만 명이니 어느 쪽 눈치를 살피는 것이 정도인지도 모르는가.

복지부 장관이 국민입장 대변

이에 비해 국회의 호통을 각오하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국민입장을 대변한 모습이 용감하게 비쳤다. 자식세대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려는 개혁의 시늉을 "세대간 도둑질"이라고 직격했으니 정곡을 찔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앞으로 65년간 매년 26조 원, 누적 1700억 원의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하여 보험료율 1. 01%만 올려도 가능한 것을 세금폭탄이라고 위협한 것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나서 1. 01% 주장은 2060년 연금기금 고갈을 전제로 그때가면 25. 3%까지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은폐 마케팅'이라고 응수했다. 복지부 장관이 야당으로부터 해임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면서 이처럼 국민을 대변했으니 주무부 장관답다는 평가이다.

개혁방향이 표류하자 당·정·청이 급히 회동하여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되 소득대체율 50%는 별도기구를 통해 국민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으로 재협상의 탈출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개혁안 변질에 따라 인책사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 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촌평하자 정치권이 발끈했다.

김 대표는 조 수석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문 대표는 대통령의 한숨에 오히려 '가슴이 터질 듯'하다고 맞받았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는 비판이었다.

여론이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자 이종걸 새민련 원내대표가 소득대체율 대신에 기초연금 지급기준 95%안과 법인세 인상안을 연계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쯤해서 여야 특위 간사가 재협상을 통해 당초 개혁골자는 살리되 소득대체율 50% 목표치는 존중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추후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합의를 도출키로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논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독선을 거두고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고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선진화 法'은 '황제야당 法'인가

천상기
·본회 회우
·경기대 초빙교수

'해머'는 사라졌지만 '제왕적 야당'이 국회를 집어삼켰다.

국회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130석 제1야당의 몽니에 160석 집권여당은 무력할 뿐이었다.

극단적 폭력을 포함해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등장하는 여야 대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선진화법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커 보인다. 야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역설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기한 폭거라는 지적이다.

지금 야당은 무서울 게 없는, 선진화법을 볼모로 '제왕적 야당'이라는 괴물이 나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책 빅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법안 처리를 '주고 받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국가적 미래를 위한 과제는 뒤로 밀리고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단체를 챙기는 야합이 활개 치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겉으로는 싸우는척하면서도 선진화법을 계기로 비대해진 입법권력을 즐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진화법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선진화된 국회운영을 하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동아일보시론을 통해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심리 서둘라'고 촉구했다.

민주정치는 만장일치가 아니다. '다수에 의한 통치, 소수의 존중'이다.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 때문에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헌법 제49조가 정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선진화법은 의원 60%가 동의하는 법안만을 상정 가능하게 규정해 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위헌적이고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법 85조2항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9면으로 이어집니다.

政經유착 고리 이젠 끊어내야 한다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성완종 뇌물사건
부정부패 척결
국민운동 계기돼야

과거 非理파헤치게
일대 개혁 단행위한
대통령 결단 필요

'성완종 사건'은 한국기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와 부패의 총 결집체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번이나 특별사면 하지 않았다면 1조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근무 당시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충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서 국내외에 이름을 알린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과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서산에서 단돈 200만원으로 서산토건을 인수해 건설업에 뛰어든 성 전 회장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충남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대표에 불과했다. 성 전 회장과 대아건설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된 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8월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부터다. 성 전 회장의 대아건설이 경남기업을 인수하자 건설업계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삼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의외로 받아들였다.

무모한 확장

당시 경남기업은 해외건설면허 1호 업체였다. 1965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해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풍부한 시공경험과 실적을 보유했다. 해외건설이 전무하고 주택사업도 많지 않은 대아건설이 해외 건설 실적 제 1위인 경남기업을 인수하자 그런 비유가 나온 것이다. 노정권 하에서 경남기업은 '폭풍성장' 을 하여 연 매출 4000억원대에 불과했던 이 건설업체는 불과 1년만에 매출이 1조원에 육박했고, 2007년엔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에서도 사업을 크게 벌였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인 '랜드마크72' 개발을 추진했다. "건물 높이 346m, 지상 72층 규모로 연면적이 60만 8,946㎡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10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됐다. 성완종 전 회장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랜드마크72'가 몰락의 서곡이었던 것이다.

'랜드마크72'는 당시 정부의 베트남 중시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랜드마크72'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건물이다. 건축 연면적으로 보면 서울 여의도 63시티의 3. 5배,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타워의 2. 7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의 1. 3배에 달한다.

하지만 권력의 힘으로 무모하게 확장한 기업은 권력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랜드마크72'는 결과적으로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2011년 건물이 준공됐지만 3.3㎡당 1000만원대의 비싼 분양가와 베트남 경기 침체로 고급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기업은 2013년 3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지난 4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특별사면 가담자 엄벌해야

지난 97년의 IMF사태 역시 정경유착으로 인한 깡통자본 기업들의 양산이 주원인이다. 경남기업 같은 정경유착사건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서민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형국이 된 것이다. 정경유착은 나라를 말아먹는 가장 큰 패악으로 척결대상 1호이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은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만든 국부다. 그는 평소 솔선수범 법을 지킴으로써 싱가포르의 법은 엄격하며 성역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행사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에 국민들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수긍하게 되었고 그 깨끗한 토대로 인해 외국의 자본들이 안심하고 투자 하게 되었으며 결국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정경유착 척결이다. 그런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의 다음 향배에 눈치보기 바쁘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성완종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기득권의 부패 네트워크는 부패척결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박근혜대통령은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 성공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 성완종 사건 뿐 아니라 자원외교 비리와 방산 비리를 포함한 모든 과거와 현재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중단 없이 파헤치도록 검찰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재확립도 중요하다. 성 전 회장이 과거 엄벌에 처해지고 특별사면이 없었다면, 현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공직사회는 국가 대혁신의 첫걸음으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는데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는 인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후 창설된 부패척결추진단의 운용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정치권과 언론 역시 각성과 자정이 절실하다.

오늘의 시대로

이홍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석좌교수)

8면에서 이어집니다.

위원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개정 당시 식물국회가 된다고 우려하자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도 나왔다. 폭력국회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소수의 횡포 앞에 다수가 굴복하는 현실이 돼버렸다.

국회 의결의 원칙이 다수결인지, 여야 합의인지 헌법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때 통과시켰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협조없이는 국회에서 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원죄는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

극한적인 대립을 피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취지였는데 여의도에서는 정치권 짬짜미 구조의 강화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국회후진화법' '야당 결제법' 이나 다름없는 이런 법 이런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하는가. 여야 합의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의 국회가 단순 과반을 의결 방식으로 삼고 있다. 우리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나 길이 막혀있다. 건너올 수 있었는데 건너 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되돌릴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개정안을 만든 뒤 야당에 내년 총선 전 개정하되 20대 국회 때부터 적용토록 하자"고 제안 하면 명분이 있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당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의 실질적 권한과 권위도 복원시켜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 권한 축소의 역사'이다.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참을 수 없는 건강프로의 가벼움

백수오 파동 부른 홈쇼핑 무책임
'쇼'처럼 진행 시청자 혼란 불러

방송시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가짜 백수오 파동은 엄청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중에 팔리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90%는 가짜가 섞였다'는 8장짜리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가짜 백수오를 판 업체로 지목된 내츄럴엔도텍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렸고, 건강 보조식품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신력에 큰 흠집을 입었다.

갱년기 여성이 겪는 괴로움은 남자나 나이 어린 여자는 모를 정도라고 한다. 그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는 백수오 제품에 값싼 이엽우피소가 대량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바이오 기업들과 제약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급락했다. 참 희한한 현상인데 '너희들도 못 믿겠다'는 소비자 분노의 표시였다. 이 파동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질주하던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한 기업의 원료 사용 부정이 저지른 대가는 아무 관련 없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투자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이다.

백수오 재배 농가도 그 피해의 예외가 아니었다. 재배해도 사가지 않으니 재배를 포기하거나 밭을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하게 되었다.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은 거센 환불 압력에 직면했다. 쇼닥터(Show doctor)들이 나서 백수오를 안 먹으면 큰 일 날듯한 분위기로 몰아가 갱년기 여성 가운데 백수오를 안 먹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니 당연한 귀결이었다. 쇼닥터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도 얻고 돈도 벌지만 백수오 파동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지는 법은 없다.

홈쇼핑 채널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사까지 출연해 백수오를 팔았다. 소비자들은 의사의 지명도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을 것이다. 방송에까지 나오는 의사이니 말이다.

백수오는 일부 종편사의 프로그램과 광고에도 등장했다. 백수오 파동 중에도 프로그램과 광고를 내보낸 종편사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다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방송에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는다.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EBS의 〈명의〉처럼 질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던 건강 프로그램이 종편이 출현하자 봇물터지듯 편성되었다. 포맷도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의 형식을 넘어 쇼(Show)화되었다. 그러면서 스타 의사, 스타 자연요법사 등이 출현했다.

종편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두 가지 포맷이다. 우선 하나는 스튜디오에 많은 출연자들을 앉혀놓고 토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연예인이 진행하고, 출연자에도 연예인이 많다. 그 가운데 한의사나 자연치유사, 가정의학과 의사가 있어 유권해석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한다. 연예인들이 중심이 된 토크의 분위기는 여느 예능 프로그램처럼 시끌벅적하고 흥미 위주로 진행된다.

또 한 가지 포맷은 카메라 탐방 형식이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중증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며 그를 찾아가 어떻게 효험을 보았는지를 취재하는 형식이다. 여기에는 체험자의 증언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곁들여진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효험이 있다는 약초와 식품들인데 그런 프로그램의 주장대로라면 거의 만병통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토크 형식의 프로그램에는 출연자들이 이 채널, 저 채널을 옮겨다니며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온갖 약초며 식품들의 효능을 맛본다. 다른 채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들을 자기 프로그램에 그대로 앉혀서 비슷한 말을 하게하는 제작진의 무성의함이 놀랍다. 또한 오라고 한다고 거의 매일 채널을 바꿔가며 출연해 실제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코멘트를 하는 출연자의 무신경함도 놀랍다.

탐방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치명적인 병에서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산골 같은 곳으로 들어가 효험이 있다는 약초나 식품을 채취하거나 재배해 먹고 나았다는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약초나 식품의 종류는 가지가지이다.

백수오 파동이 한창일 때 어느 종편에서는 겨우살이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겨우살이가 관절염과 다이어트에 특효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겨우살이의 효능에 탄복하며 겨우살이 예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저러다가는 겨우살이가 동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면 병원 치료보다는 자연식에 의존하는 자연 치료가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 주변에는 큰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그들이 자연 치료법에 의존해 병을 고쳤다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 치료보다는 자연 요법 또는 검증되지 않은 비 의료적 요법에 의존하다 돌이킬 수없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인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이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와 좌절, 절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개인차와 환경의 차이가 다양한 환자들이 효험만 믿고 달려드는 부작용은 또 어찌할 것인가?

나는 어느 지면에 암 치료에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효과를 보고 있는 미국의 한 종합병원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기사가 나가고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전화 내용으로는 한국 병원에서 최후 통고를 받은 환자의 경우였다. 내가 소개한 그 병원은 치료 환경이 좋은 만큼 비용이 무척 비싸다. 우리나라의 한 재벌 총수가 치료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 그 후로 나는 건강이나 병과 관련된 글은 잘 쓰지 않는다. 건강은 우리 생애에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의 작품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된 적도 있는데, 공산 치하 체코에서 개인의 가치가 말살되는 고통을 그린 작품이다.

나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참을 수 없다.

퇴역 센서스

대한언론인회-한국
언론史上 처음… 年

평생을 언론에서 일하고도 관심밖에 버려졌던 퇴역 언론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한언론인회가 지난 1년간 계획했던 '퇴직 언론인 센서스'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공동사업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본회와 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전문기관의 3자 자문위원회와 실무팀으로 구성되어 시작된 이 사업은 1단계로 대한언론인회 회원 전원과 2단계는 본회 회원이 아닌 전국 주요 신문 방송퇴직자 등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하는 센서스로 연내에 매우 크고 뜻있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이 보고서와 자료는 향후 언론사 등 언론기관의 언론대책과 노후정책에 기초자료로 반영될 것이다.

언론인은 매우 촉망받는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 취급되면서도 전혀 사후대책 없는 직종의

언론사 사우

사우회보 52호 발행

경향신문 5월 1일자로 사우회보 52호를 발행했다. 경향신문의 성완종 인터뷰 대특종을 머리기사(3면에 상보)로 다루었다. 제3회 경향모범상 시상이 있은 2014송년모임 소식(2면)을 비롯, 경향 초대 주필 정지용(4면)과 소설가 김동리(5면), 정지용생가 문학관(6면), 최서영 본회 자문위 의장의 정동논단(7면), 인생2모작 임진모(9면), 당대 인기시리즈(12-13면),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의 '나의 투병기'(17면), 경향산악회의 어제와 오늘(19면), 시사만화가 뚜꺼비(20면), 동호회 소식(22면)등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단합대회 250여명 참석

동아일보 지난 5월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동우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를 가졌다. 5월 20일자로 발행된 동우회보(16면 컬러) 42호는 이같은 소식을 1면 2면 3면에 걸쳐 실었다. 동우회 자선바자를 통해 얻은 동우회 지원기금으로 65인치 대형모니터를 구입, 최고의 음악감상실을 구축했다는 소식(4면)과 동우회 산클럽(6, 7면), 동우탐방(8면), 화제의 동우(11면), 그때 그 시절 동아방송이야기(13면·안평선)등 다양한 기사가 실려있다.

사우회보 199호 발행

중앙매스컴 지난 4월 30일 자로 사우회보 199호를 발행했다. 서울 둘레길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언론인
실시

-언론진흥재단 공동
內 보고서 출간계획

하나로 버려져온 현실이다. 이 문제는 노후문제를 다루는 정책기관은 물론 언론인들이 평생 몸담고 있는 신문·방송사 자체에서도 외면되어 왔다.

이번에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착수한 이 사업으로 퇴역언론인의 현황과 생활상, 그리고 의식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재취업 등 노후대책의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올바른 언론정책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언론사상 최초의 사업이 될 이 작업은 현재 조사설계, 조사일정, 그리고 실효있는 조사항목 등 구체적인 센서스 방안 등이 세워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한 실무 작업팀에서는 앞으로 퇴역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우편물, 전화, 인터넷을 통한 설문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회 소식

을 완주한 3명의 사우 사진과 서울 둘레길 완주증서와 다양한 친목 모임 등이 눈길을 끈다. 중산회 길사랑 판우회 맛사랑 중출회 young 77회 큐사랑 윤우회 중앙그린회 동부회 칠칠회 등 동우회 활동이 다채롭게 소개돼있다.

사우회 명칭바꿔… '한경인 상' 제정

한국경제 지난 6월 1일자로 회보 11호를 발행했다. 최귀조 회장의 취임 100일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하여 나온 이번 호에는 한경동우회를 한경사우회로 명칭을 바꾸고 '한경인 상'을 제정한 소식이 돋보인다. 유인근 본회회우가 쓴 '나의 재직시절', '한경광장'에 이어 한경사우회 집행부 임원진 다수가 대한언론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임을 박스로 소개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4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가운데 새만금 방조제 등을 답사하고 친목을 다졌다.

회우도서 KBS 도서실 비치

KBS 회우들이 펴낸 책을 KBS 도서실 특별서가에 비치한다. 5월 1일자 사우회보 157호는 이같은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는 방송관련 전문서를 비롯한 회우 저술도서를 한 곳에 모아 후배들이 언제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KBS출신이란 자긍심과 함께 후배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사우회는 또한 6월 19일(금) 강릉으로 문화유적지 답사행사(선착순 120명)를 계획하고 있다.

정치개혁-국가안보 뜨거운 논쟁

정치지도자 리더십 검증 목소리
美-日 접근 따른 外交정책에 경종

신문시평

박석흥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언론법학회 감사

재·보선 참패로 격화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개정된 새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으로 정치개혁과 국가 안보 논의가 5월 신문의 뜨거운 주제였다.

케리 방한 후 22일 조선일보는 '역사는 반복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대한제국이 패망한 100년 전 한반도 역사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고 한탄하고, 권력형 부패 폐습 극복과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5월 신문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386운동권 일부의 반도덕성, 고액소득과 기득권 철밥통을 고수하려는 일부 핵심 정치세력의 욕심과 부패를 고발하는 기사가 줄을 이었고 "새정치연합, 밑바닥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직설적인 경고 사설(조선 5.23)도 있었다. 중앙일보도 '이런 김무성 문재인에게 미래를 맡겨도 될 것인가'라는 22일자 사설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의 리더십을 검증 했다. 4·29 보선 후 본격화된 성완종 뇌물수사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과, YS(김영삼) MB(이명박)계열의 일부 정치인 및 정파주의 언론의 부패척결 반대가 있었으나 대부분 신문은 정치개혁을 통한 대 전환을 제시했다.

5월 한반도는 12·19 대선 후 지속된 국내 정치 혼란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결속이 몰고 온 국제적 파동으로 내우외환의 격랑에 휩싸였다. 아베 미국 방문과 시진핑의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후 미·일, 중·러 동맹강화로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냉전의 태풍의 눈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은 '신밀월' 관계가 되었지만 한국은 구한말 일제 침략과 병자호란 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 한국 신문은 '가츠라·태프트 밀약'을 상기하며 국가안보를 어젠다로 설정했다. 일부 일본·미국 편향 지식인과 보수 세력은 "미·일 밀월시대, 한·미동맹은 어쩔 참인가"라며 '미국에게 할 말을 하고 일본의 과거사 정리를 촉구한' 박근혜정부를 불통외교라고 했다. 중앙일보 23일자 사설은 "중국의 부상·일본의 군사대국화·미국의 재균형 전략·북한의 핵개발위협·미·일의 신밀월관계까지 겹쳐 한반도안보가 위태롭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우리 외교 당국은 꽉 막힌 대북, 대일 관계를 풀지 못해 무능 외교 논란에 휩싸여 있는 답답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신문 주미 특파원은 이런 총체론적 위기론은 "한미동맹의 실체와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견제용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펼치는 미국에게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일본은 미국 최고의 파트너일 수 있겠지만, 아베가 일본군 집단 성노예 추행 등의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사과를 못해, 세계 역사학계와 언론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아베 방미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여 일본군 활동 무대를 넓혔고,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 미·일 양국 군사작전 조정 기구 설치 등 미·일 동맹이 강화 된 것은 사실이다. 미 국방차관보는 방위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작전의 구체화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미·일 동맹 강화로 대중국견제·포위 가속화와 중·일 전쟁에 대비하는 중·러 동맹 강화 등으로 동북아 신냉전 체제 심화로와 평화는 불투명해졌다. 미국 중국 일본의 국익을 위한 치열한 암투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도 일본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과의 영토 분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에서도 기피한 "한국 침략 사죄와 이른바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및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혈맹 관계인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요청은 검토할 수도 있으나 일본의 제 2 군국화에 조건 없이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 양식 있는 국제정치학자와 국제 전문 기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2010년 일본 지식인 105명은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경술국치)은 원천적으로 무효(null and avoid)"라고 성명했고 아베 미국 방문 중 미국 역사학자와 일본 역사학자들도 아베의 과거사 왜곡 중단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도 "일본군의 집단 성노예 잔학 행위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놀랄만큼 강했으나 아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5일 6,900명의 일본 역사 교사학자와 교육 관련 16개 단체가 아베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베의 군국화가 초래할 제2의 핵폭격 위험을 우려하는 일본 지식사회의 반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돈 때문에 전범국 일본과 밀착한 오바마 정권에 대한 미국 지식사회의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1953년 한미방위조약 추진 과정에서 미국편에 서서 협정 체결을 반대했던 야당 정치인과 영향력 있는 언론의 실수를 온고지신(溫故知新)하라고 원로학자들은 충고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러시아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음모는 후안무치하다"며 아베를 비판했다. 시진핑은 23일 3,100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온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에게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의 범죄를 감추고 역사의 진상을 왜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네스코도 일본 메이지 산업화 유산 현장에 조선인이 강제 징용되어 피해를 당했던 사실도 밝히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비인도적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를 외면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 조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스웨인 선임연구원이 '포린 어페어스'에 발표한 "미·중 충돌 위험을 피하고 협력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와 대만을 중립화 또는 완충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칼럼으로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론스타 소송 정당하게 하라'는 칼럼으로 거대 국제 자본가에게 민족경제가 유린당하는 것을 경고했다. 한국 신문들이 국익을 위해 할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관과 교육관을 가진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내우외환의 혼란을 극복할 대안과 에너지를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기자들은 뇌물 수수로 수감된 박범훈 MB정부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재임 중 벌어진 왜곡된 국사교과서 보급·학교폭력에 희생된 중학생 자살사건 등 공교육이 무너진 MB정부 교육 부조리를 추적 보도해야 할 것이다.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9·끝〉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나의 治病記 — 통풍·당뇨·고혈압·심장병 (下)

권도홍
·본회 회오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통풍과 당뇨병으로부터 벗어난지 여러해가 되고, 따라서 병원에 갈일도 없고, 약을 복용하는 일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식습관을 옛날로 되돌리거나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나의 변함없는 생활습관이다. 나는 언제나 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 치병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기야 나이와 함께 가중되는 노화(老化)도 병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뜻밖의 불청객이 또 찾아왔다. 5년 전이니까 2010년 여름으로 기억된다. 무슨 일로 집 가까운 종로구 인사동의 내과병원을 찾아갔던 날더러 전에 당뇨병을 진단했던 황씨 성 가진 원장이 가슴속을 헤아리던 청진기를 떼고 하는 말이 "가슴 속에서 기차가는 소리가 난다"고 했다. 거 이상하다. 내가 기차를 삼킨 일이 없는데 가슴 속에서 기차가는 소리가 난다니? 황원장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찾은 곳이 강남의 큰 병원이다. 강남에는 한국 재계의 정상이라던 토건업자 출신이 세운 A병원과 제조업자가 만든 S병원, 두 개의 큰 병원이 있다. A병원은 창업주의 거침없는 기질을 닮아서 그런지 수술 실적이 한국 제일이라고 했다. A병원 심장외과를 찾아간 나에게 송씨 성 가진 심장외과 전문의는 피검사를 시작으로 심전도, 단층촬영(MRI)과 심장내시경까지 검사료가 70여만원이나 되는 여러 가지 검사 끝에 나의 심장에 어떤 장해가 있는지 영상(스크린)으로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는 그 의사와 네댓사람의 인턴이 참석해 있었다. 심장병을 영상으로 교육하는 실습 시간이기도 한 모양이었다. 스크린에 비치는 심장의 방실간(房室間) 피 흐름의 역류현상을 본 내가 의사의 설명을 듣기 전에 "저거 폐쇄부전(閉鎖不全)아닌가?"하니까 의사와 인턴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환자가 자기가 앓고 있는 심장병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는데야 놀랐겠지. 그러나 나는 폐쇄부전을 일으킨 그 밸브가 어떤 판(瓣)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A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여러 권의 심장병 서적을 읽고 어떤 심장병이 어떻게해서 일어나며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다. 심장에는 4개의 밸브(瓣膜)가 있다. 밸브는 방(房)과 실(室)을 나누는 역류방지 밸브다. 우심방(右心房)과 우심실(右心室)사이에는 삼첨판(三尖瓣), 우심실과 폐동맥(肺動脈) 사이에는 폐동맥판(肺動脈瓣), 좌심방(左心房)과 좌심실(左心室)사이에는 승모판(僧帽瓣),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대동맥판(大動脈瓣)이 있다. 이들 4개의 판 가운데 어느 것에 장해가 있어 밸브가 꼭 닫기지 않아 방실간을 넘어간 피가 역류를 하든지 협착에 의해 피가 흐르기 어렵게 되는 것이 이른바 심장판막증이다.

심장판막에 장해가 생겨 피 흐름이 역류하거나 흐르지 못하게 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비후(肥厚)나 경직에 의해 장해가 생겼을 때는 밸브를 깎거나 해서 수리를 하거나 밸브를 잘라낸 다음 인공판(人工瓣)으로 판갈이를 하거나 돼지나 소의 심장밸브로 판을 갈아끼우는데 반드시 가슴을 열어야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슴을 여는 일이 창문 열듯이 수술이 단순하겠는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나는 가슴을 여는 끔찍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장해가 생긴 심장을 스스로 보살피는 '셀프 케어'가 가능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송씨 성 가진 그 심장외과 전문의는 생활수칙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이 단지 숨이 가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르막길을 오르면 숨이 가쁘지 않느냐? 가슴이 아프지 않느냐?"고만 묻고 며칠 뒤에 다시 오라며 예약하기를 일러줄 뿐 다른 말이 없었다.

그 뒤로 5년, 나는 다시 A병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의사를 만난 적도 없고,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를 만난 적도 없다. 오로지 나의 판단에 의해 병든 심장을 달래고 격려하면서 오늘까지 멀쩡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한 '처치'가 보편적인 심장판막증 치료방법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으니 심란한데 그렇다하더라도 내가 한 일은 어림짐작으로 한 '서툰 수작'이 아니라 주문해서 구입한 의료서적들을 읽고 확실한 신념으로 심장판막을 되살리는 여러 가지 자구책이 주효한 것으로 믿고 있다.

심장병도 '셀프 케어'가 가능하다

심장판막의 폐쇄부전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나의 식습관은 당뇨병을 고치기 위한 칼로리 제한과 당질(糖質)제한을 비롯한 절제된 식습관을 지켜왔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될 거리가 없었다. 그러나 동물성지방질의 섭취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과채식(果菜食)위주의 베지터리언(菜食主義者)으로 스스로의 영양관리를 통제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 두 끼는 주식으로서의 밥을 배제하고 탄수화물은 고구마 한 개로 자족했다. 또 소금기가 전혀없는 무염식(無鹽食)으로 시종한 것은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심장이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A병원에서 심장판막(승모판)의 폐쇄부전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와 한 일은 관련서적을 찾아서 앞으로 내가 스스로 심장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생활수칙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셀프케어'라는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심장의 경우 쉽고 간단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식습관으로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자면 콜레스테롤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 되겠다. 미국의사 '콜드웰·B·에세르스틴·주니어'박사가 쓴 '심장병의 예방과 회복(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을 보면 "식물성 식품으로 심장병의 진행을 멎게하고 회복시키자"면 첫째가 콜레스테롤 총 수치를 150아래로 유지해야 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콜드웰'박사의 심장병은 판막이 아니라 관동맥(冠動脈) 질환을 말하고 있다. 우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아래에 있도록 하면 수술이 필요한, 관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질환도 수술없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심장판막의 폐쇄부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우선적으로 식습관을 과채식 위주로 바꿈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아래로 두게하고 심장에 해로운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는 생활습관의 수칙을 스스로 세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겠는가? 책장에 꽂혀있는 상당량의 건강·의료서적 중에서 미국의 영양학자 '진·카파(Jean Carper)'가 쓴 '기적의 치유(MIRACLE CURES)'를 골라잡았다. 그 책 속에서 지금 내가 장기복용(5년)하고 있는 '코큐텐(CoQ-10)'을 찾아낸 것이다. '코큐텐'의 Co는 효소(Coenzyme)의 약자다. 그래서 '코큐텐'을 '콘짐Q10'으로도 부르는데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지만 강력한 항산화(Antioxidant)물질이며 심장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적의 치유'에는 '코큐텐'의 기적같은 치유력을 말하는 에피소드가 실려있다. 심질환으로 사경(死境)에 빠져있던 어떤 할머니가 의사가 처방한 '코큐텐' 10mg 3정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효과를 못보고 있던 중 아들이 잘못알고 사가지고 온 100mg짜리 3정(하루 용량)을 복용한 뒤로 심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이 예화(例話)를 읽고 곧장 종로5가 광장시장의 양키물건 파는 가게를 찾아간 나의 눈에 미국 GNC사의 '코큐텐' 120정짜리 서플멘트병이 들어왔다. 그 뒤로 나는 하루에 '코큐텐' 100mg 2정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코큐텐' 외에도 서플멘트이지만 심장혈관(cardio vascular)건강에 유효한 '라이코펜(Lycopene)'도 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도 항산화물질인데 수박에도 들어있으나 딸기에는 들어있지 않다. '라이코펜'도 30mg 2정을 하루 2번에 나누어 복용하는데 효과있는걸로 믿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치매예방을 위해 은행잎에서 추출한 '깅코 바이로바(Ginkgo Biloba)'도 복용항목에 들어있다. 독일의 제약회사 '슈와베(Schwabe)'가 처음으로 제품화에 성공한 은행잎 성분인 '깅코 바이로바'는 혈류개선제로는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SK제약의 '기넥신'이 그것이다. 혈류를 개선하는데 특히 뇌혈관의 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치매예방에는 뛰어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은 하루에 '기넥센·에프' 120mg 1정을 복용하면 된다. 나는 복용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넥신·에프' 120mg 1정과 미국 GNC사 '깅코 바이로바' 60mg 1정, 도합 180mg을 복용하고 있다. 치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치매가 가장 겁나는 질환이다. 그러나 지금 내 기억력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확실하다. 미팅약속이 몇건이든 적어놓지 않고도 어김없이 외운다면 족할것이다.

그러나 노화는 어김없이 온다. 생로병사를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으로 완화해야 될 것이다. '대한언론'에 부족한 글을 계속 쓴 것은 아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우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연재를 이번으로 끝내겠다. 모두 노익장하시도록.

6월 건강포럼 20일(토) 개최

이달엔 인간 생존에 필요한 소금에 대해 강의한다. 과학자들은 나트륨 섭취부족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목: 소금에 대한 진실은?
강사: 최위권 박사(천기염 전문가)
일시: 2015/6/20 토요일(2시부터)
장소: 을지로입구 이윤수병원 홀
문의: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010-4461-5657)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나이가 아프다

조영서
·본회 회우
·전 조선일보 출판국장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사

바람은 빛깔이 있다. 계절 따라 빛깔이 있다. 그때마다 그 빛깔이 모두 다르다. 바람의 빛깔에도 철이 있다. 샛노란, 새파란, 짙푸른, 울긋불긋한, 새하얀, 잿빛이 그러하다. 따라서 바람결에도 빛깔이 보인다. 바람이 숨을 쉰다.

바람아, 나는 바람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고, 끝내는 바람 속으로 죽어갈 것이다. 오늘도 바람을 걸어간다. 그 끝이 가물가물 아득하다.

나는 아침을, 저녁을 산책한다. 요즘 들어 좀 뜸하지만 나무가 있는, 자그나마 숲이 있는 오솔길을 즐긴다. 하늘을 떠받들어 더 높게 쭉쭉 뻗어가는 나무와 나뭇잎이 햇빛을 찰랑이는 소리가 한결 빛부시기 때문이다.

아침 이슬을 보라. 풀잎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져도 망가지지 않고 아침을 반짝인다. 그 쬐그만 이슬 방울 속에서도 해가 뜨고 하루가 열린다. 아침은 촉촉하게 환하다.

저녁 이슬은 저녁 이슬대로 그 이슬방울 속으로 해가 진다. 이내 노을이 서고 사그라지는 서울의 노을은 노을이 아니다. 저무는 바람이 어둠을 불러들인다. 저녁은 축축하게 어둑어둑하다. 돌아보면 산책길이 따라오고 있다. 뒷굽이 무겁다. 문득 김춘수 시인의 시 「산보길」 이 떠오른다.

어떤 늙은이가 내 뒤를 바짝 달라붙는다. 돌아보니 조막만한 다 으그러진 내 그림자다. 늦여름 지는 해가 혼신의 힘을 다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어떤 날은 물길을 본다. 한강을 걷는다. 뻔한 말이기는 하나 물길은 어제를 흘려보내고, 오늘을 흐르고, 내일을 흘러갈 것이다. 한강 따라 물결 소리 헤아리다 물결을 놓친다. 한낮을 그래저래 보낸다. 물길 건너 한 시인이 강은 바다에 이르러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만큼 온몸을 맡긴다. 한몸이다. 바다가 넓고 넘실거리는 까닭을 알겠다. 바다는 수평선 그 너머로도 있고 온 세계로 통한다.

나이가 아프다. 나는 지금 나이를 앓고 있다. 중병인지도 모른다.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이가 나를 먹는다. 여든 넘기고 더한 나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참 부끄럽구나, 왜 나이를 먹어야 하는가. 내가 나에게 묻는다. "뭐 했어" "뭘 남겼어"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감춘다. 미안하구나, 수치스럽구나, 민망하구나, 뉘우친들 무엇하리. 뉘우침은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돌아봐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게 있는 거라 하고 있는 거라 하지만 그래 나이가 더 아프다.

시간이란 세월이란 대체 무엇인가. 어젠가는 시간을 잡으려다 차고 있던 시계가 고장난 꿈을 꾼 적이 있다. 손목시계는 수갑이다. 재깍, 재깍, 숨가쁘게 녹슬어 간다.

나는 텅 비어 있다. 내 마음이 또한 그러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 아무것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비어 둔 그대로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 하잖아. 빈 것이 가득 차 있는 걸까. 빈 것은 빈 것의 무게와 깊이가 있지 않는가.

오늘따라 빈 자리가 유독 눈에 뜨인다. 텅텅 빈 자리에 내가 보이지 않는가. 물론 그림자도, 나는 어디 있는가.

전화벨이 울렸다. 안부 전화겠지. 아니나 다를까 "건강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는다. "건강은 그저 그렇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하고는 웃으며 끊는다. 그저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 얼마나 편한가. 넉넉하게 느긋하게 말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오늘도 눈이 부시도록 맑디맑은 날이다. 바람이 푸르게 싱싱하다. 산책길에 나선다. 햇살 한 올 한 올 만져 본다. 은총이다. 머리가 걸어간다. 지구가 한 바퀴 또 돌아간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㊵

건강한 식생활 기억력 오래유지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다량의 채소와 과일 등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해밀턴에 있는 연구 중심 명문 맥마스터 대학(McMaster University) 스미스(Andrew Smyth) 연구원은 40개 국가에서 고령자 28,000명에 대해 식생활을 조사한 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한 식생활을 한 점수가 상위 20%인 사람들은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여러 다른 인지적 기능 감소현상이 낮았다고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최근호에 발표 했다.

건강한 식생활을 한 상위 20%인 사람들은 붉은 육류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손실이 25% 낮았다. 사고력은 불건강한 식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 18% 감소하였으나 건강한 식생활을 한 경우이 보다 4%포인트 낮은 14%였다.

스미스 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차이는 반드시 식생활에 의한 것이라고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라했다.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체중이 낮으며, 운동을 더하고, 흡연도 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정신적 기능과의 연관성은 물론 인지기능 감소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인지기능을 좋게 하는 식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스미스 연구원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비교하였는데, 높은 지표의 경우 예를 들어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것과 튀긴 음식 그리고 육류를 적게 먹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스미스 연구원은 그러나 실제로 인지기능에 좋은 식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시카고 소재 러시대학(Rush University) 탱그니(Christy Tangney)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교수는 최근 소위 말하는 마인드 다이어트(MIND diet)를 하는 사람들은 치매발생위험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다. MIND diet는 유명한 지중해식 다이어트와 본래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식생활 습관인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를 통합한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생위험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이다. MIND diet에서는 채소와 과일, 통곡, 견과류, 올리브유, 두류, 가금류(家禽類)와 생선을 강조하는 반면 붉은 육류, 치즈, 버터, 당분 그리고 튀긴 음식을 가급적 덜 섭취하게 하는 방법이다.

김성환 회우 十長生圖 전시회에 참석한 본회 회우등이 기념촬영을 했다.

고바우 김성환 회우 十長生圖 전시회 성황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의 작가 김성환 원로회우의 '고바우 십장생도' 전시회가 5월 27일 인사동 가나 인사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6월 2일까지 계속됐다.

이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은 동양화풍으로 해, 구름, 산, 물, 돌, 소나무, 불로초, 학, 사슴, 거북 등 장수의 상징물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 고바우 영감이 함께있는 그림으로 80여점이 나왔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 박춘희 서울송파구청장, 김태선 동아일보 사우회장, 인보길 조선일보 사우회장 그리고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신우식 흥원기 고문, 이형균 부회장, 김용발 박기병 윤익한 이병대 이성춘 이향숙 이홍우 장석훈 회우, 그리고 이화장의 이인수박사 내외와 20명의 화가·만화가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溫故知新

'牧民心書'를 다시 보라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백성도 없고 나라도 없으면 벼슬아치가 어찌 있을 수 있으랴. 하지만 공직자들이 백성의 공복(公僕)이란 사실을 외면한 채 참 주인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왕조시대나 민주화시대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조선왕조가 망한 지 약 100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된 지도 70년이 되었건만 관직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공무원들이 참 주인인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못된 풍조는 좀처럼 사라질 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건만 오늘날 공직자를 보면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주인인 국민의 눈치를 보기에 앞서서 권력자와 상급자들의 눈치만 살피니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수양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좋은 머리를 타고나 좋은 학교를 다녔지만 인간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읽기를 다시 한 번 권하는 것이다. '목민심서'가 다산이 남긴 불세출의 명저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책을 제대로 새겨서 읽어본 사람은 드문 듯하다. 많은 공직자가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제세구민(濟世救民)하려는 다산의 인본주의 애국애민사상을 마음 깊이 새겼더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12편 72조 48권으로 되어 있는 '목민심서'에서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킨다. '심서'란 다신 자신이 유배당한 몸이기에 몸소 실천할 수 없으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썼다고 해서 일컬은 것이다. 다산은 '목민심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修身)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 말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워졌다. 요즈음의 사목(司牧)이란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줄을 지어 진구렁에 떨어져 죽는데도 사목된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조선왕조 519년간 청백리로 표창받은 분은 모두 218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162명이 1392년 개국 이후 1592년 임진왜란 때까지 200년간 배출되었고, 임진왜란부터 1910년 조선왕조 망국까지 319년간은 56명에 불과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국정이 혼란해지고 탐관오리가 횡행하여 국운이 내리막길로 굴렀다는 반증이다. 다산은 이처럼 어지러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의 참상을 직시하여 벼슬아치들이 헛된 물욕과 공명심 따위를 버리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의 길을 걸으라는 깊은 뜻에서 '목민심서'를 인고(忍苦)의 귀양살이 중에 저술했던 것이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개탄했다. '백성은 땅으로 논밭을 삼는데 관리는 백성으로 논밭을 삼는구나.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으로써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써 수확하는 일로 삼는다.' 그래서 다산은 이런 말로 탐학한 관리들을 경계했다. '만일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하여 족한 것을 알면 세상의 재물을 구해서 어디에 쓰랴. 청풍명월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대울타리 초가집은 돈 쓸 일이 없으며, 책을 읽고 도를 이야기하는데 돈이 들지 않으며, 몸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돈이 남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면 세속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이니 탐욕스러운 마음이 또한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이는 또한 같은 책에서 말한 '선비의 청렴은 처녀의 순결과 같다.' '청렴은 공직자의 본분이며 모든 선(善)과 덕(德)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않고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참된 국민의 공복 노릇을 하려는 이들은 '목민심서'를 꼭 읽어보기를 충심으로 권한다.

살며 생각하며

"나는 네가 한일을 알고 있다"

이향숙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문화부 차장

요즘 뉴스를 보면 일부 정치인과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과 진실 게임하는 식상한 장면뿐이다.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전 물귀신 작전으로 공개한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이 "돈을 받은 일 없다, 받은 증거가 있으면 목숨을 내놓겠다."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부인 비자금이라고 거짓말이 확실한 말로 발뺌했다. 성 회장 자신의 비리도 줄줄이 밝혀지는 단계다. 이밖에도 많은 정치인들과 측근 이름이 오르내려 수사선상에 올랐고, 그 동안에 있었던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이나 땅콩 회항 사건, 가족을 살해하고도 거짓 신고 후 도망친 남편 등 부정행위 은폐용 거짓말을 더 이상 보고 듣기가 개탄스럽다.

전문가의 실험에 의하면, 상습 거짓말쟁이는 정상인보다 뇌 앞 쪽인 전두엽에 연료를 공급하는 뇌세포(회백질)가 14.2% 부족하고,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정보전달 통로인 백질이 정상인보다 22~ 26% 많아서 다른 기억과 생각으로 조작,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고 한다.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박사 마리 프랑스 샤르는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라는 저서에서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떤 반응이든 몸에 나타난다고 한다. 유심히 살피면 상대가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샤르 박사는 거짓말 증세로 "공짜 정보를 제공한다. 유머(농담)로 가장한다. 지나치게 장황하게 말한다. 지나치게 간결하게 말한다.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질문으로 대꾸한다. 정직을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한다." 라고 했다.

이밖에 시선을 피하거나 말 꼬리를 흐리거나 발을 툭툭 차는 등 특정한 몸짓을 보이는데 무엇보다 눈동자가 불안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거짓말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면 양심 불량이 되는 〈리플릿 증후군〉이라는 거짓말 불감증에 걸린다고 한다. 허구를 진실이라고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나중엔 그게 자기가 꿈꾸는 진실이라고 믿는 증상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로 거짓말의 표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 교수는 그의 저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 사소할수록 죄의식이 약하다. 돈만 훔쳐야 죄라 믿지만, 회사 돈을 거짓으로 더 받거나,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따위도 죄다. 진실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르게 거짓말로 속이고 이간질하며 배신하는 사람 등 부도덕한 사람들은 남에게 정직하고 존경받고 싶은 심리와 속여서라도 이득을 얻고 싶은 두 가지 마음에서 악의로 거짓말하고 부정행위를 한다."

그의 각종 실험에 의하면 창의적 인간일수록 거짓말을 잘하고, 부정행위도 잘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비용편의 분석을 통해 거짓말 할 때와 안 할 때의 손익 계산을 해서 거짓말 할 때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각오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지능이나 인종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다.

영국 뉴캐슬 대학 교수 3명이 공동 실험을 했다. 교내에 교직원 전용 음료수 무인판매대를 설치하고 값을 '정직함' 속에 양심적으로 넣게 했다. 처음 5주간은 함에 꽃 그림을 넣은 안내문을 붙이고 나중 5주간은 사람의 눈을 넣은 안내판을 붙였다. 결과는 눈을 그렸을 때 함 속의 돈이 3배 많았다. 그 눈은 누군가 너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

어떤 부당이득을 위한 교묘한 거짓말이나 부정부패 행위도 영원히 비밀로 남는 일은 없다. 언젠가 밝혀진다. 1997년 미국에서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영화가 개봉됐었다. 완전 범죄로 끝날 뻔한 연쇄 살인사건 범인을 막판 증거로 체포하는 공포 스릴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똑같은 제목의 사건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1808년 (순조 8년) 前 사간원 정원인 원유붕이 권세를 믿고 甲질로 전횡을 휘둘러 양민들 돈을 뺏고 죽이고 온갖 횡포를 저질러 원성이 자자했다.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자 3백냥을 달라 해서 뜯고 다시 "꿔준 돈 3백 냥을 갚으라."고 거짓 차용증을 내밀어 핍박하여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괴편지가 두 번 날아와 그의 비행을 낱낱이 지적했다. 그는 찢고 무시해버렸는데 세 번째 편지가 오고 "나는 네가 지난 해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는 한 줄만 씌어있었다. 그는 이 글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당시 암행어사 홍의영이 쓴 글로 인해 결국 원유붕은 죽게 됐다.

결국 모든 거짓말과 부정행위는 누군가는 반드시 알고 있고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게 진리이다.

미국의 한 청년이 교회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다고 목사에게 호소했다. 목사는 "다음 주 예배 때 맨 앞에 앉았다가 자기가 10계명을 말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일어나서 뒤를 돌아볼 때 눈 마주치기를 피하는 사람이 도둑이다."라고 했다. 그 다음 주 예배가 끝난 후 목사가 도둑을 찾았냐고 묻자 청년은 "저는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두려웠고, 자전거를 지난 주 집에 두고 왔었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했다. 청년이 거짓말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10대 죄 중에 말로 인한 죄목을 4가지 꼽는다. 그만큼 입으로 짓는 죄가 중하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다. 댄 애리얼리는 부정행위 은폐용 거짓말은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감기 바이러스처럼 타인들에게도 전염돼 윤리적 건전성이 느리지만 꾸준히 재앙으로까지 변한다고 했다. 점점 나라를 뒤흔드는 이 부정부패에 관한 흉악한 거짓말은 빨리 끝나야하고, 어떤 모습으로 매듭지어질지 궁금하다.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재앙이 안 되고, 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선의의 하얀 거짓말만 난무하는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애리얼리 교수는 부정행위와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재앙이 되는 걸 막으려면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초기에 엄하게 징계해야 하며, 언론은 진실만 보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채움’보다 ‘비움’의 이탈리아 힐링여행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정원과 옛 수도원 등이 보이는 아나카프리 정상에 선 필자.

해안 절벽 위에 파스텔 톤의 주택이 층층이 들어선 친퀘테레 리오마조레 마을.

여행 설레고 가슴 떨릴 때 해야

나이의 무게를 느끼면서 해외여행 패턴이 선택과 집중으로 바뀐다. 예전엔 한 나라라도 더 끼워 넣으려 했지만 허욕이고 과시욕이다. 전투하듯 바쁜 일정에 쫓기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다. 여행도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어렵다. 여장을 풀고 꾸리는 것도 힘들고 장거리 이동도 고역이다. 유적지에서 역사를 더듬는 것도 기억이 가물거려 벅차다. 지난해 동유럽여행 때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모스크바에 불시착한 영향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도 불안하다. 시차적응과 피로회복도 예전 같지 않고 더디다.

지난 2월 25일부터 일주일간의 유럽 여행은 이탈리아에 집중했다. 영원한 도시 로마와 폼페이는 두 번째 방문이지만 도도한 패션도시 밀라노,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 물의 도시 베니스는 처음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삶터가 풍경이 된 아름다운 마을 친퀘테레와 풍경이 힐링 명소가 된 카프리 섬이다.

해안 절벽의 다섯 마을 친퀘테레

이탈리아 북서부 라 스페치아 지방의 친퀘테레(Cinque Terre)는 이탈리아어로 ‘다섯 개의 땅’을 뜻하는 해안가 절벽 마을이다. 라 스페치아 역에서 출발하는 2층 열차에 올랐다. 관광 비수기라 관광객 보다 현지인들이 많다. 주민네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담소하는 모습이 평화롭다. 차창에 기대어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도 느긋하다. 덩치 큰 개와 함께 탄 주민의 덩치도 만만찮고 덩치만큼 여유 넘치는 표정이다.

친퀘테레 마을은 리오마조레, 마나롤라, 코니글리아, 베르나차, 몬테로소 알 마레 등 다섯 곳이다. 각기 다른 매력을 품은 해안 절벽마을이지만 파스텔 톤의 집과 미로 같은 좁은 골목, 동화 같은 포구는 서로 닮았다. 유네스코는 아름다운 마을들과 절벽 길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다.

다섯 마을을 순회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아무 데서나 내려 돌아볼 수 있다. 친퀘테레 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첫 번째 마을 리오마조레에서 내렸다. 역 광장 절벽의 빛바랜 대형벽화가 눈길을 끈다. 마을개척사를 묘사한 듯 돌을 나르고 축대를 쌓는 모습이다. 바위 절벽에 방어벽을 세우고 조성한 마을의 역사가 읽힌다.

짙푸른 바다와 아청빛 하늘이 맞닿은 지중해를 발밑에 거느리고 언덕위에 층층이 들어선 형형색색의 집들은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답다. 한낮의 햇살은 은비늘로 부서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색깔도 푸르다. 산비탈 길을 따라 마을을 돈다. 아기자기한 좁은 골목마다 레스토랑과 앙증맞은 가게가 보인다. 작은 철공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한다.

자동차의 매캐한 매연과 소란한 경적이 없는 것만으로도 호젓하다. 비탈길 좁은 골목이니 차가 다닐 수 없다. 로마와 밀라노 등 대도시 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갓길이나 도로 분리대에 주차한 차량은 묘기에 가깝다. 장난감 같은 2인용(Smart)과 1인용(Twizy) 경차가 늘어나는 이유다. 자동차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마을 뒤 산비탈은 포도와 올리브 밭이다. 남해의 다랑이 논을 떠올리게 한다. 포구로 발길을 돌린다. 포구에서 올려다보니 집들의 색깔이 더욱 선명하다.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하다 돌아오면서 자기의 집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멋진 색으로 외벽을 칠했다고 한다. 지중해의 해풍과 뜨거운 햇살을 먹고 자란 이곳 포도로 빚은 와인은 친퀘테레와 샤케트라 두 종류. 많은 문인들이 이곳 포도주를 ‘달의 와인’이라 칭송했다기에 포구의 와인 바를 노크했더니 문이 닫혔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선박 수리와 집 도색 등 단장이 한창이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은 10여㎞에 불과해 호젓하게 걸으며 마을을 둘러볼 수 있다. 걷기 코스 가운데 리오마조레 마을과 마나롤라 마을을 잇는 ‘비아델 라모르’라는 연인의 길이 인기다. 연인이 바다를 배경으로 입을 맞추는 조형물은 친퀘테레의 상징이 됐다. 언덕 위 산비탈의 코니글리아 마을, 교회당과 망루, 모래 해변이 있는 베르나차 마을, 마을 순례의 종착점인 몬테로소 알 마레 마을을 못 둘러본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로마 황제가 점찍은 휴양지 카프리 섬

‘카프리 섬’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점찍은 천혜의 휴양지다. 지금은 세계적 부호와 스타들의 휴양지로 명성이 높다. ‘세기의 결혼식’ 주인공 영국 다이애나 비의 허니문지로 알려져 유명세를 더 한다. 축구스타 박지성도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왔다는 게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다.(검색했더니 유럽 유명 휴양지로 돼있다) 파블로 네루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 화제가 됐던 영화 ‘일 포스티노’의 촬영지도 카프리 섬이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 나폴리 현에 딸린 카프리 섬은 나폴리 만 입구, 소렌토 반도 앞바다에 위치해 있다. 소렌토의 파리나 피콜라 항에서 유람선으로 30여분 바닷바람을 가르고 달리니 카프리 섬의 위용이 드러난다. 카프리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항구를 낀 동쪽 마리나 그란데 지역은 카프리, 서쪽의 높은 지역은 아나카프리.

까마득한 절벽을 나선형으로 가로지르는 절벽 도로를 미니관광버스가 곡예 하듯 올라간다. 오금이 저리고 아찔하다. 도로는 차 한 대 겨우 비켜갈 정도로 좁다. 빨간 소방차를 비치해 놓은 작은 소방서와 크고 넓은 화분 하나 크기의 로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작다. 쪽빛 바다를 낀 하얀 집들이 발아래 그림처럼 펼쳐져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언덕 위 아나카프리는 별천지다. 카프리가 레스토랑과 상점들로 번화한 편이라면 아나카프리는 카프리 보다 작지만 고즈넉하다. 아우구스투스 정원과 옛 수도원, 움베르트 광장과 시계탑, 시청사와 시장, 작고 예쁜 성당과 아기자기한 상점, 호텔과 명품 샵이 즐비해 귀족적 분위기다.

주거지를 높은 곳에 조성한 것은 조망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적들의 침범과 약탈을 피해 높은 곳에 취락지를 조성했다. 카프리 섬은 근대에 접어들어 제2의 지브롤터로 불릴 정도로 지중해 방어의 요충지다. 한 때 나폴레옹 1세의 프랑스 지배를 받다가 영국에 점령당하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예술가들이 즐겨 찾으면서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는 명소가 됐다.

카프리 섬을 더 빛나게 한 것은 로마시대부터 알려진 ‘푸른 동굴’. 길이 53m, 너비 30m, 높이 15m의 해식동굴로 바다빛깔이 형광물질을 뿌려놓은 듯 몽환적 푸른빛으로 유명하다. 요트 전용 접안시설을 갖춘 호텔과 레지던스들이 늘면서 중동의 부호들이 여름을 나고 유명인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휴가를 즐긴다고 한다.

아나카프리의 빅토리아 광장에서 1인용 리프트를 타고 몬테 솔라로 산(해발 589m)에 오른다. 고소공포증이 있으나 발아래 이름 모르는 야생화와 수채화 같은 그리스풍의 하얀 집들에 시선을 던지며 두려움을 잊는다. 정상에 오르니 어느 곳을 둘러봐도 그림이고 카메라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 된다. 멀리 소렌토와 폼페이를 삼킨 베수비오 산이 아득하게 보인다. 속이 붉은 카프리의 오렌지처럼 달고 상큼한 휴양지다. 해질 무렵, 나폴리로 가는 페리에 몸을 실었다. 40여분 지나 나폴리 항에 도착하니 거대한 누오보 성이 거만하게 굽어본다. 세계 3대 미항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쓰레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솔향-藝香-海香-風光에 취하다

본회 강릉일대 문화탐방

강릉하면 역시 경포대

대한언론인회 회원 100여명은 지난 5월 20일 강릉지역 문화탐방에 나섰다.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관동 팔 백리에 방면을 맞기시니--'송강 정철선생의 관동별곡을 떠 올리며 집을 나서니 유난히 쾌청한 날씨가 반갑기 그지없다. 강릉하면 역시 관동팔경 중 으뜸인 경포대, 정자 안엔 栗谷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鏡浦臺賦」가 우리 일행을 압도한다.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술잔과 임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다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인 경포대 앞에 서니 풍광이 이렇게 빼어날 수가 없다. 물실호기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이웃에 자리한 참소리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신비의 경지 참소리박물관

문을 열자마자 수천여점의 축음기와 음반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세계 17개국에서 만든 1,400여점의 축음기와 음반 15만장에 8천여 점의 음악 관련 도서 자료들이 전시관 세 곳에 빼곡히 들어서있다. 진열장 한 곳에 자리한 전 세계 여섯 대 중 유일하게 현존한다는 아메리칸 포노그래프(1900년 제작)가 신비스럽기만 하다. 각종 아름다운 모형의 나팔 축음기를 비롯 포토블 축음기, 어린이 축음기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 최초 '베어드 30라인' TV를 비롯하여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인 유성기 1호 틴포일(1877년)부터 오늘날의 오디오까지 전 세계 오디오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많은 귀중품들을 어떻게 수집했을까. 40여 년 간 60여개 국가에서 축음기를 모아 1992년 참소리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한 손성목 관장의 기적 같은 집념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모두들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표정이다.

입 또한 즐거웠던 하루

금강산도 식후경. 배가 출출하던 차에 들른 횟집은 강릉 제일의 명소답게 진수성찬이다. 더하여 강릉 MBC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방송인 노영순(전 강릉 MBC 이사)회우가 선물한 방풍(防風·중풍 통풍을 예방)막걸리에 취기가 도니 신선이 따로 없는 느낌이다. MBC 강원 영동 안우정 사장은 방풍나물로 빚은 떡을 선물해 입맛을 돋우니 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닌가. 멀리 양양에서 양양한 앞길을 바라보며 합류한 김 집 원로 회우, 속초시장을 역임한 동문성 회우와 전 MBC부국장 박명근 회우 모두들 옛 동료를 현지에서 만난 기쁨이 남다른지 희색이 만면이다.

조선중기의 대표적 여류문인 허난설헌

건배! 또 건배! 김은구 회장의 건배제의를 시작으로 꽃 피운 덕담을 뒤로하고 허난설헌기념관을 찾으니 점심도 굶고 기다렸다는 김복자 해설사가 저만치 손짓하며 반긴다. 청산유수로 열강하는 미모의 해설사를 바라보노라니 身老心不老라던가 갑자기 생면부지 난설헌의 얼굴이 오버랩 돼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허난설헌(許蘭雪軒)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여류 문인의 한사람으로 본명은 초희(楚姬), 남편 김성립과 시댁과의 불화와 자녀의 죽음과 유산 등 연이은 불행을 겪으면서도 300여 수의 시와 산문, 수필 등을 남겼으나 현재 213수 정도가 전한다고 한다. 서예와 그림도 잘 그렸다는 난설헌의 남동생이 바로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許筠)이다. 한 가지라도 더 설명해주려는 해설사와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선교장에 들르니 역시 윤연심 해설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차분히 그 옛날 99칸 사대부 집 최고(最古)주택 선교장의 역사를 줄줄 외운다.

해설사마다 열강

오후 늦게 찾은 오죽헌. 초입엔 근엄한 율곡선생의 동상이 보이고 그 옆 자리 석각엔 '見得思義'가 선명하다. 경건한 마음으로 목례를 올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옛 날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단장돼 있었다. 보물 제165호. 栗谷이 태어난 몽룡실(夢龍室), 별당 건물 현판 오죽헌(烏竹軒) 어느 한 곳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한다. 시간가는 줄 모르게 최춘옥 해설사의 해설을 듣던 한 회우는 핸드마이크를 달라더니 '전국 최고의 해설사'라고 극찬에 극찬, 짧은 만남 속에 오고간 덕담과 넘치는 해학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귀로의 2호차 차중에선 유한준 회우가 친절하게도 신사임당과 이율곡의 생애를 소상히 들려주어 감회를 새롭게 했다.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나마 강릉에서 보낸 하루는 오랜만의 엔도르핀 축적으로 마냥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하루 종일 웃음꽃을 피운 회우들은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에 감사의 박수를 잊지 않았다.

글 · **정운종** 이사 사진 · **강두모** 회우

경포대 앞에서 '언론 바로서기' 캠페인을 벌인 회우들.

오죽헌 앞 넓은 잔디광장에서 기념촬영.

강릉 古奇 정담 나들이

유한준
·편집위원
·시인

하늘도 반겨준 원로 언론인 107명
강릉지역 문화탐방
춘계 나들이길,

신사임당-율곡, 원님도
울며 넘던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 중턱 뻐엉
뚫어놓은 일곱 터널 달려
동해안 검푸른 절경
한눈에 담았네.

하늘, 준령, 호수, 바다, 님의 눈동자까지
애틋한 사랑 세월의 향기 뿜어대는 곳,

하 많은 무상(無常)한 세월 엮으면서
강건한 필설로 달려온 칠팔구십대
원로 논객들
2만 5천년 신비 간직한 경포호 경관에
덧없는 세월의 한 순간 흠뻑 담갔네.

소리-빛-영상 습결 모아놓은
참소리박물관과
허난설-허균 남매의
문향(文香) 기념관 보고, 99칸 사대부가(家)
최고(最古)주택 선교장 찾아
배다리 전설 긴 세월
옛이야기 뒤로 넘기고,
사임당과 율곡 母子
출생한 오죽헌 품에 안겨
생로병사 부귀영화
회상에 잠겼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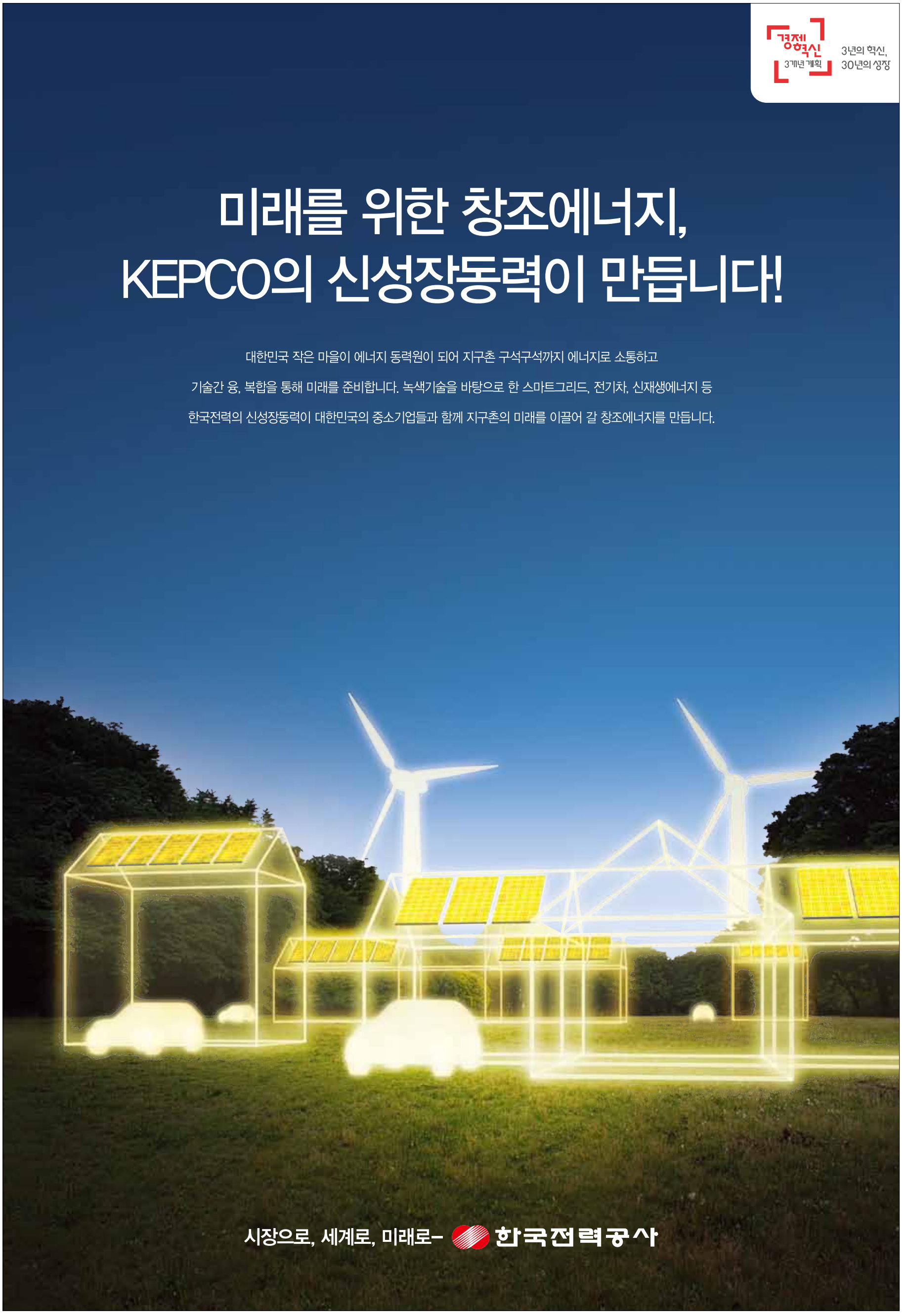
솔향 예향(藝香) 해향(海香)의 정취
발길 닿는 곳마다 고기(古奇) 되살리고
한송정 숲길 정념 나눈 문화탐방 나들이,

해송(海松)거리 오찬, 귀경길의
석식반주 별미에
원로 언론 노객 가없는 덕담에
생기 넘쳐나니
오! 건장한 문화 나들이 길
하루해가 짧았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미래를 위한 창조에너지, KEPCO의 신성장동력이 만듭니다!

대한민국 작은 마을이 에너지 동력원이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에너지로 소통하고
기술간 융, 복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한국전력의 신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조에너지를 만듭니다.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 한국전력공사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 특강

곽찬호(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원로회우= 4월 22일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광진구 민주평통자문위원 350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 주제로 특강.

문체부 도서전에 저서 출품

김 현(여행연출가·문화산책 청류회 회장)회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전 현직 직원 도서전에 '세계도시 기행'등 10권의 책을 출품했다.

인류효도계승대회 명예대회장 위촉

박기정(함경북도 지사·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회우= 5월 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명예대회장으로 위촉돼 축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선임

박동은(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부회장)회우= 5월 28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동우회 단합대회 사회맡아

박문두(전 동아일보 사진부장·동우회 상임이사)= 지난 5월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동아일보 사우회 단합대회 2부 행사에서 노련한 말솜씨로 사회를 맡아 기량을 뽐내기도.

(재) '통일과 나눔' 위원장 취임

안병훈(도서출판 기파랑 대표)회우= 지난 5월 26일 '통일과 나눔 재단'(가칭) 출범식을 갖고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통일과 나눔 재단은 남북 교류를 촉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활동을 하게 될 민간재단이다. 재단과 통일기금의 공식 명칭 등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된다.

동아마라톤 대회 풀코스 완주

어경택(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사)회우= 최근 동아일보와 서울시·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한 2015 서울 국제마라톤 겸 제86회 동아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풀코스(42.195km)를 완주했다.

납북인사 기념관 설립준비위원

이태영(전 중앙일보 편집국 섹션국장)상담역=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회 이사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납북인사기념관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짓기로 하고 그 설립 준비실무위원으로 활동 중.

인도수상 모디 특집호 발행

임 덕 규 (월 간 외 교 Diplomacy 회장)회우= 월간외교 Diplomacy에 지난 달 방한했던 인도 모디수상 특집을 싣고 함께 기념촬영. 임덕규 회우는 지난 40년동안 500여명의 세계 지도자들을 표지의 인물로 등장시켰다.

충효사상 주제 특강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 회장)본회고문= 어버이날인 5월 8일 아침8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앞 광장에서 거행된 제1회 인류효도 회복계승대회의 공동회장 자격으로 '충효사상은 나라의 근본'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창조문화대상 집행위원장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회우= 월드그린 미디어그룹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2015 창조문화대상 시상식 집행위원장 겸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취임

최금녀(시인·전 국제펜클럽 이사)회우= 최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열린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25대 이사장으로 취임.

대한언론인회 전화증설

기존번호외 070 국번 6대 늘려

대한언론인회는 KT전화국의 협조로 사무실 전화를 기존 732-4797, 4798 2001-7621번 외에 아래와 같이 070 국번 6대를 증설했습니다. 아래 어느 전화로도 통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요금 변동 없음)

(기존번호) 02-732-4797, 02-732-4798 02-2001-7621,
(증설번호) 070-4281-2105, 070-4281-2140, 070-4281-2131,
070-4281-2123, 070-4281-2129, 070-4281-2125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오일룡(吳一龍) 1934년 7월 10일생
주소 : 인천 중구 신도시 북로 43-73 창보아파트 101동 102호
전화 : 010-7132-5123
〈경력〉
경향신문 기자(60) 일간스포츠 기자(63) 동양방송 기자(64)
KBS체육부장(73) 스포츠 국장(85 - 93)

정재도 원로회우 별세

정재도 원로회우가 5월 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26일 아침 발인했다. 고인은 1925년 8월 19일 광주 출생으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호남신문 교정부장을 거쳐 소년조선일보 주간을 지냈다. 한글학회 정회원으로 사전편찬에 참여하고 문교부 국어심의위원, 한글분과위원, 국어순화분과위원을 역임하는 등 우리말 연구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한글학회 연구위원, 땅이름학회 회장, 한글연구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었다. 대한언론인회는 25일 김은구 회장등 임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추도사는 다음호에)

본회 자문위원회 하반기 사업 논의

신경식 헌정회장 당선 축하도

본회 자문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대한언론인회 하반기 사업에 대한 자문을 했다. 신경식 자문역의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당선 축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김은구 회장은 퇴역언론인 센서스 등 하반기 사업보고를 했고 이에 대한 자문을 모았으며 헌정회와 대한언론인회의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신경식 회장의 헌정회장 당선 앞뒤의 이야기와 이날 출판기념회를 가진 김영수 자문역의 '대한민국 기자' 발간, 그리고 지난날의 취재비화 등의 이야기꽃을 피웠다. 회의에는 김영수 신경식 윤상철 이덕주 이종전 자문역과 이재원 간사, 정운종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음식점 장원에서 있은 오찬비용은 신경식 회장이 부담했다.

◀ 주 소 변 경 ▶

이철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126. 2동 907호(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우 (150-882)

회우경조사

부 음

안병준 회우= 5월 9일 모친상.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5월 10일 오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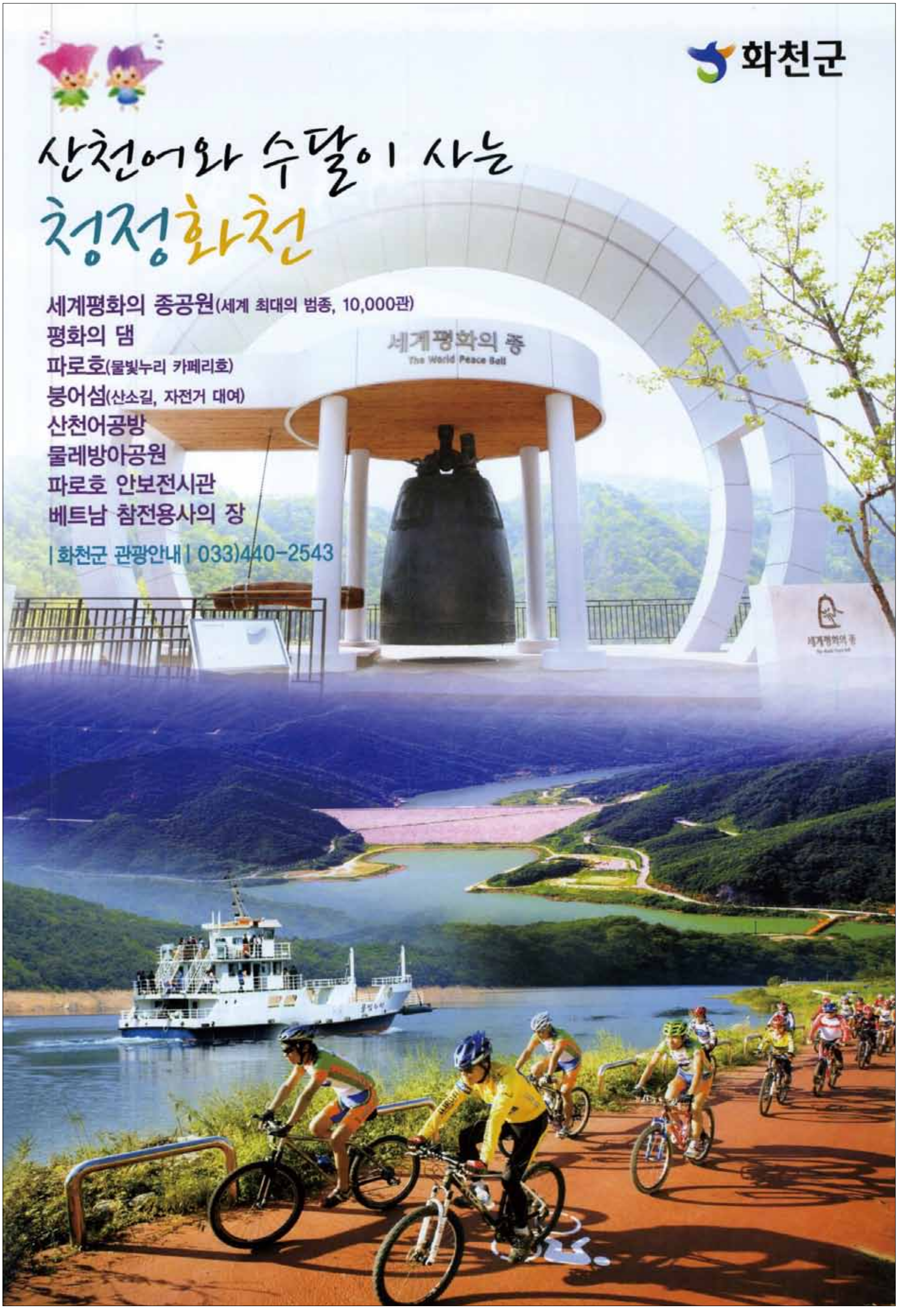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김병모(15.16)
김응환(15)
노영태(14)
박영길(13.14)
성낙오(15)
성만복(15)
엄영섭(15)
오일룡(입회비)
이배영(15)
한영탁(15)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화천군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청정화천
세계평화의 종공원(세계 최대의 범종, 10,000관)
평화의 댐
파로호(물빛누리 카페리호)
붕어섬(산소길, 자전거 대여)
산천어공방
물레방아공원
파로호 안보전시관
베트남 참전용사의 장
| 화천군 관광안내 | 033)440-2543
세계평화의 종
The World Peace Bell

UNIVERSIADE GWANGJU 2015
FISU
전 세계 대학생 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UNIVERSIADE GWANGJU 2015
7. 3. ▶ 7.14.(12일간)
UNIVERSIADE GWANGJU 2015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광주 · 전남 · 북 일원 주요 경기장
종 목 : 21개(정식 13개, 선택 8개), 170여개국 2만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 수지
Suzy (Promotional Ambassador of 2015 Gwangju Universiade)